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과테말라 공화국(Guatemala)
면적	108,889 km ² (자료원 : 과테말라 통계청, 2018 기준)
수도	과테말라시티
인구	16,913,503 명 (자료원 : World Bank, 2017 기준)
민족(인종)	백인(5%), 라디노(혼혈 60%), 마야 인디오(39%), 기타(5%) 등
언어	스페인어(기타 약 23개의 마야 토착언어 존재)
종교	천주교(45%), 기독교(42%) 및 기타 토착종교
기후	아열대성(단,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해발 1,500m의 고산지대로 연평균 20~22도의 상춘 기후 형성)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 본명: 제임스 에르네스토 모랄레스 까브레라(James Ernesto Morales Cabrera)○ 부통령: 자펏 까브레라 프랑코(Jafeth Cabrera Franco) - 취임일: 2016년 1월 14일(임기: 4년)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10-24 (자료원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78-04-28	양국 무역 통상, 최혜국 대우와 관련된 내용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문화협정	1978-09-18	양국 문화 교류 협력과 관련된 내용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투자증진 보호 협정	2002-08-17	투자활동 촉진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	2002-08-09	EDCF 자금 공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3-12-17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 면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2006-02-20	양국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일반사증 면제협정	2007-10-04	일반여권 비자 면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2015-09-16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자료원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교민 수

5,312 명 (자료원 : 외교부, 2017년 재외동포 현황)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과테말라는 1962년 10월 24일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하고 1974년 9월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1977년 7월에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개설했다. 더불어, 과테말라는 북한과도 2007년 9월 26일 수교하였으나, 과테말라에 별도의 상주 공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주멕시코 북한대사관이, 과테말라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이 이를 겸임하고 있다.

경제

과테말라는 파나마와 함께 중미 6개국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다. 한국은 과테말라와의 교역을 통해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계 투자진출기업들은 과테말라 봉제산업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 과테말라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약 73개에 달하는 한국계 봉제업체들(전체 봉제업체의 25%)이 생산하는 제품이 현지 봉제업 수출의 80%를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의 현지 경제 기여도는 매우 크다. 다만 근래 들어서 한국-과테말라 양국 간 교역량은 수출입 통틀어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한편, 한-중미 FTA도 한국과 관계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2010년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SICA정상회담 당시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논의된 것을 계기로, 이후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FTA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9차례의 FTA 협상이 진행됐고(공식 7회, 회기간 2회),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2017년 3월 12일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임시서명을 맺었으며, 과테말라의 경우 국내 산업계의 반대의견 조율에 실패,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빠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민 의견 접수를 위해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중미 FTA 협정문 영문본과 국문본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이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FTA 최종 점검을 위한 기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중미 5개국 대표단과 함께 협정문 전체를 최종 점검하고 서명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하였다. 2018년 2월 21일 드디어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서울에서 정식 서명을 마쳤으며, 이후 각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빠른 곳은 2018-2019년 중 FTA를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중미국 최초로 2018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첫 나라가 되었다.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 후 별도의 추가 가입 절차를 통해 협정에 재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있어 중남미 비중점 국가에 속해 있으나, 과테말라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이다. OECD Stat.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5년까지 5,000만 달러를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하였다. 반대로 유상원조인 EDCF 자금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이용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2018년 11월 기준 국립병원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경찰교육시스템 개선사업 외에도, 초청연수 사업인 공공투자관리 역량강화사업(2.4억 원), 과테말라 도시개발 사업(2.4억 원) 등의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문화

대사관 및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한국영화 상영회, K-POP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대사관, 한인회 공동 주관 문화행사로 매년 9-10월경 개최하는 중남미-대한민국 예술제는 한인교포사회와 현지인이 함께 어울리는 최대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들어서는 7월 K-POP WORLD FESTIVAL 과테말라 예선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이어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8월 방문하여 현지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 사물놀이 워크숍과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4.17	4.14	3.09	2.76	-
명목GDP (십억\$)	58.72	63.77	68.66	75.62	79.11
1인당 GDP (PPP, \$)	7,552.57	7,788.5	7,955.58	8,164.79	8,413.97
정부부채 (% of GDP)	24.28	24.21	24.52	24.72	25.08
물가상승률 (%)	3.42	2.39	4.45	4.43	3.67
실업률 (%)	-	-	-	-	-
수출액 (백만\$)	7,330.9	9,469.6	10,449.3	10,981.8	-
수입액 (백만\$)	14,871.5	16,718.7	17,002.8	18,390	-
무역수지 (백만\$)	-7,540.6	-7,249.1	-6,553.5	-7,408.2	-
외환 보유고 (백만\$)	7,074.85	7,521.77	8,909.12	11,488.85	12,309.89
이자율 (%)	4	3	3	2.75	2.75
환율 (자국통화)	7.73	7.65	7.6	7.35	7.52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경기침체 및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과테말라는 이러한 지역 전체의 하방 리스크와는 다소 탈동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타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과테말라는 반대로 자국 화폐가 강세를 보이거나 하락세가 더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들어 두드러지는 화폐가치 평가절하 현상도 최근 2년간 과도하게 고평가된 화폐가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 2016년 초 1달러당 7.5 과테말라 케찰을 전후로 형성되던 환율이 2017년 8월 7.27로 최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8년 12월 중앙은행 발표 기준환율은 1달러당 7.73 과테말라 케찰을 기록했다.

한편 2018년 5월에는 현지화 평가절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모습을 보이자 중앙은행은 보유 외화 4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등 과거 매입 일변도에서 탈피, 매도를 확대해 나가는 등 외환 시장 개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의 과테말라 케찰화 평가절하 원인으로는 가족

송금 증가세 둔화,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 국제유가 인상/구매력 상승에 따른 수입지출 증가, 수출 감소 등을 꼽고 있다. 참고로 환율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외국민의 가족 송금은 여전히 신기록을 경신 중이나 상승세는 전년과 비교하여 많이 둔화된 모습이다.

그간 외국 투자자본의 유입이 많지 않은 고립된 경제구조가 대외 요인에 덜 취약한 내성을 갖추는데 기여한 측면도 분명 존재하나, 이보다는 미국발 대외요인에 극단적으로 종속된 경제 구조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 정부의 재미 불법 이민자 추방 움직임만으로, 그리고 미국의 수입선 대체 움직임만으로도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미 경제의 특징이자 한계인 것이다. 즉,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덩달아 성장하고 침체되면 나비효과로 인해 더 큰 파괴력으로 다가올 취약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매년 재외국민의 가족 송금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2016년 본국 송금액이 7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2017년 송금액은 81.9억 달러로 2011년 송금액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간 공약으로 내세운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미리 송금을 서두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 전망

완화적 금융정책, 소비자 물가 안정세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는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축인데,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만큼, 미국 이주 과테말라인의 본국 송금이 소비 진작의 밑바탕이 되어 2019년까지 적어도 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참고로 해외거주 동포의 송금을 통한 외환 유입이 2018년 10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2016년 연간 송금액을 돌파하였다. 한편, 미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과 2018년도의 세계 개혁안 등 소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내외 악재가 남아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2018년 11월 29일 발표한 기준금리는 2.75%로 2017년 4분기 이후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분야의 저조한 정부지출/투자는 반대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9년 6월과 8월에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2020년 초반까지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인한 공공지출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943,691,612
2	엘살바도르	1,263,804,379
3	온두라스	885,487,791
4	니카라과	513,740,731
5	멕시코	432,442,895
6	코스타리카	418,346,537
7	대한민국	288,661,410
8	파나마	282,680,559
9	네덜란드	270,497,442
10	캐나다	235,220,45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735,342,822
2	엘살바도르	1,239,767,515
3	온두라스	903,372,628
4	니카라과	554,815,881
5	멕시코	429,805,877
6	코스타리카	417,674,839
7	네덜란드	285,288,988
8	파나마	261,533,693
9	캐나다	232,161,948

10	중화인민공화국	207,185,39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653,636,687
2	엘살바도르	1,204,217,390
3	온두라스	913,934,260
4	니카라과	569,273,582
5	멕시코	458,661,108
6	코스타리카	425,795,685
7	캐나다	347,837,183
8	네덜란드	310,142,888
9	파나마	248,878,773
10	일본	169,197,68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357,976,746
2	멕시코	1,950,048,725
3	중화인민공화국	1,796,888,726
4	엘살바도르	830,655,084
5	파나마	679,747,793
6	코스타리카	537,047,109
7	대한민국	439,818,213
8	온두라스	422,778,865
9	콜롬비아	376,741,608
10	스페인	304,992,678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548,454,908
2	멕시코	2,040,031,659
3	중화인민공화국	1,868,217,132
4	엘살바도르	903,702,206
5	파나마	606,472,333
6	코스타리카	599,653,394
7	대한민국	433,767,128
8	콜롬비아	376,080,525
9	온두라스	366,616,698
10	독일	286,207,52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537,799,701
2	멕시코	1,940,613,715
3	중화인민공화국	1,846,661,364
4	엘살바도르	902,040,120
5	코스타리카	595,498,001
6	파나마	565,204,157
7	콜롬비아	375,015,077
8	온두라스	331,507,375
9	대한민국	321,074,153
10	일본	306,631,92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950,764,375
2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667,232,648
3	080390	기타	665,243,672
4	261610	은광과 그 정광	357,906,796
5	260700	연광과 그 정광	349,278,161
6	610610	면제의 것	299,867,690
7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276,974,498
8	151110	조유	257,000,150
9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40,318,921
10	300490	기타	206,466,08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848,246,541
2	080390	기타	717,410,810
3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663,037,331
4	260700	연광과 그 정광	306,244,805
5	261610	은광과 그 정광	303,695,508
6	610610	면제의 것	268,542,784
7	151110	조유	247,219,062
8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42,473,920
9	300490	기타	240,057,707
10	610510	면제의 것	173,614,04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820,170,347
2	080390	기타	771,201,948
3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650,317,477
4	151110	조유	338,498,732
5	260700	연광과 그 정광	324,169,630

6	300490	기타	249,900,514
7	610610	면제의 것	247,843,522
8	261610	은광과 그 정광	231,266,758
9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29,007,802
10	080719	기타	182,345,425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827,119,276
2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143,515,125
3	300490	기타	438,888,227
4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61,076,236
5	271112	프로판	333,169,180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66,882,747
7	100590	기타	206,288,148
8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3,671,755
9	210690	기타	163,183,776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56,967,10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170,290,601
2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845,423,469
3	300490	기타	498,207,237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19,072,208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322,536,823
6	271112	프로판	235,794,943

7	100590	기타	206,754,260
8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80,108,625
9	210690	기타	176,232,952
10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0,161,733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007,005,729
2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818,206,395
3	300490	기타	464,095,155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5,316,690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372,774,949
6	271112	프로판	234,188,419
7	100590	기타	211,062,032
8	210690	기타	207,989,487
9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75,914,084
10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하고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159,937,943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320	321	-1
2015	398	162	236
2016	288	139	149
2017	241	112	129
2018	199	57	14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33	0	32
2	4360	편직물	27	0	27
3	7412	화물자동차	24	0	24
4	2140	합성수지	9	0	9
5	2211	염료	8	0	7
6	7251	건설중장비	6	0	6
7	4213	면사	5	0	5
8	2262	의약품	3	0	3
9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4	0	3
10	6191	강반제품	10	0	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24	0	24
2	4360	편직물	24	0	24
3	7412	화물자동차	20	0	20
4	2140	합성수지	11	0	11
5	2211	염료	11	0	11
6	7251	건설중장비	8	0	8
7	4213	면사	6	0	6
8	2262	의약품	6	0	6
9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5	0	5
10	6191	강반제품	5	0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51	커피류	0	27	-28
2	0116	과실류	0	17	-18
3	8353	폐건전지	0	5	-6
4	0158	당류	0	6	-7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4	-4
6	4411	편직제의류	1	1	-1
7	0157	주류	0	9	-9
8	6221	동괴및스크랩	0	2	-3
9	5213	벨트	0	0	-1
10	0113	두류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51	커피류	0	23	-23
2	0116	과실류	0	13	-13
3	8353	폐건전지	0	7	-7
4	0158	당류	0	4	-4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3	-3
6	4411	편직제의류	1	2	-1
7	0157	주류	0	1	-1
8	6221	동괴및스크랩	0	1	-1
9	5213	벨트	0	1	-1
10	0113	두류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	도미니카공과 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	2000-05-18	2001-10-15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멕시코-중미 FTA	멕시코와 중미 5개국간(파나마 제외)	2011-11-22	2013-09-01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중미 FTA	파나마와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간	2002-03-06	2009-06-22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DR-CAFTA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 간	2004-08-05	2006-07-01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대만-과테말라 FTA	대만(양자)	2005-09-22	2006-07-26	양자 FTA
콜롬비아-중미 북부 3개국 FTA	콜롬비아와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간	2007-08-09	2009-11-12	콜롬비아와 중미 북부 3개국간 다자 FTA
칠레-중미 FTA	칠레와 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 간	2007-12-07	2010-03-22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EU-중미 FTA	EU와 중미 6개국 간	2012-06-29	2013-12-01	(중미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베네수엘라 관세협정	베네수엘라	1985-10-30	1986-01-01	양자 협정
과테말라-쿠바 관세협정	쿠바	1999-01-29	2001-05-18	양자 협정
과테말라-벨리즈 관세협정	벨리즈	2000-06-20	2010-04-04	양자 협정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온두라스	2015-01-21	2017-06-26	엘살바도르 편입을 위한 3국 협상 완료(2018년 6월)
과테말라-에콰도르 관세협정	에콰도르	2011-04-15	2013-02-19	양자 협정

〈자료원 : 과테말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과테말라-페루 FTA	페루	2011년 12월 6일 체결 완료(이후 진전 없음)	협상 중지 상태로 수년간 유지되고 있음
EFTA-중미 FTA	EFTA 4개국과 중미 6개국 간	2014년 11월 17일 체결 완료(이 후 진전 없음)	(중미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 카, 파나마
캐나다-중미 4개국 FTA	캐나다와 중미 4개국 간	협상 진행 중	(중미 4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트리니다드토바고 관세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2015년 2월 6일 양국 서명 후, 2017년 2월 17일 과테말라국회의 비준 완료	트리니다드토바고 국회 비준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나, 큰 진전은 없음

<자료원 : 과테말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과테말라의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 법은 아래와 같다.

- 총기/탄약류 관리법(LEY DE ARMA Y MUNICIONES, DECRETO 39-89)
 - 공격용 무기 규제에 관한 사항
- 환경 보전/개선법(LEY DE PROTECCION Y MEJORAMIENTO DEL MEDIO AMBIENTE, DECRETO 68-89)
 - 인체/동물 유래, 환경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사항
- CFC 규제법(LEY RELATIVA A CFC, DECRETO 110-97)
 - CFC 보유 제품 규제에 관한 사항
- 마약유통 규제법(LEY CONTRA LA NARCOACTIVIDAD, DECRETO 48-92)
 - 마취제, 마약류 등 규제에 관한 사항
- 농약 규제(DECRETO 377-90)
 - 농약, 살충제 등 25개 제품 규제에 관한 사항

수입 규제 품목의 경우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중고차도 한때 수입 규제 대상이었다. 예컨대 2012년 3월 법안(Decreto 10-2012)에 따라 15년을 초과하는 차량 모델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입 중고차에 대한 연식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고차수입자조합(GREMIAL DE IMPORTADORES DE VEHICULOS USADOS)이 동 규제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이 인용되면서 2013년 6월 29일부로 동 규정을 철폐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 제도

- 인증제도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액과 같은 화학제품 등은 위험품목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돼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해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Certificado de Libre Venta)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3~4개월이다.

영사 인증제도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서비스 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확인 목적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 상 적정 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현재까지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 시행 사례가 없다.

○ 라벨링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 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이며 표준 규격 인정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중미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에서 담당한다.

2)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 절차

모든 식품 수입 및 유통업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관리국에 등록 후 위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살아있는 동물 및 가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산하 동물 보건국의 동물 수입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순종으로 간주되는 동물은 수출국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가축 사료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및 담배와 그 모조품 수입 시 농림부 조례·규격부서의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담당 기관의 인증 획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관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한다.

3) 인증 관련 절차 안내 사이트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으로 개발, 각종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해주는 온라인플랫폼 asisehace.gt가 운영되고 있다. 상호, 법인 등록부터 공과금납부, 보건등록 신청 등 대부분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잘 소개가 돼 있으며, 비록 스페인어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구글 번역기가 연동돼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한국어 번역된 내용으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4) 기타 주의사항

보건등록을 위한 양식 일부가 2018년 8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해당 양식의 이름은 법정대리인 위임서(CARTA DE PODER DE REPRESENTANTE LEGAL)로 문서 상 조항에 독점계약을 의미하는 문구는 없지만, 해당 등록제품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문서인 만큼 일종의 독점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독점계약을 원치 않거나 병행수입자를 원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동 문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제품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중미 최대시장인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나중을 대비하여 위임 기간을 최소화(1년)하거나 향후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문서를 미리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TBT

현지 통상 관계법은 미국이나 국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별도의 까다로운 TBT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식료품, 의약품 같은 인체 내로 들어오는 제품류의 경우 TBT로 비취질 수 있는 요소들이 다소 존재한다. 예컨대 다이어트식품류, 유사요법 약제(호메오패틱), 예방 약제, 생약제제 등은 반드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국제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보건연구소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LNS)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영문:CACM/서문:MCCA)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중미 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 관세 체계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키고 있다. 더불어 중미 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고 있는 5개국은 2017년 1월 1일부로 기존 체계인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품목분류체계가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코드 추가 또는 세분화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도 기술 발전, 일부 품목의 소멸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과테말라국세청(SAT)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온라인 조회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구 번호체계(8자리)로 검색하면 무관세(영세율)로 검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관세율 종류

○ 수입 관세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역내교역은 중미 단일관세코드(CAUCA) 체계에 의거 FAUCA라는 별도 수출신고양식을 통해 처리하게 되고 역외교역은 중미 관세체계(SAC)에 의거 대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골자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 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즉, 회원국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와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적용을 유보하되, 각국의 관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증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HS 1005.90.30), 설탕(HS 1701), 담배를 함유한 궤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 수입 부과금

수입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은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참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 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당 0.02달러, 바닷가재는 0.1달러를 부과한다. 모든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가격의 1.5%(FOB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커피, 면화, 설탕, 목재, 바닷가재, 바다 새우 등의 수출 시에는 생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동법상의 특례에는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임시 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관세 환급의 특례 적용 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가공 생산업체, 조립 생산업체, 수출업체, 간접 또는 재수출업체로서 관세의 환급 신청 기한은 수입면장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중미경제통합 역내국 간에는 석유 제품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수출진흥법(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을 정해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Dirección General de Integración Económica)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 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관세를 알아보는 법

관세 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 평가 시 인용되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 관세를 찾는 법1: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시스템 활용
 - <http://www.sieca.int> 방문
 -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on 클릭
 - Guatemala 선택
 - 'I.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XXI.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중에서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 분류상 해당 부 선택(표 왼쪽에 로마자 표기)
 -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 2단위 선택
 - 원어 설명 Codigo: HS Code 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관세율
- 관세를 찾는 법2: 과테말라국세청(SAT) 온라인시스템 활용
 - <http://portal.sat.gob.gt/portal/arancel-integrado/> 방문
 - 페이지 중앙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선택 -> 'consultar Arancel Integrado de Guatemala' 선택
 -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조회코자 하는 HS코드 10자리(또는 SAC 코드 10자리) 입력 후 'Buscar' 버튼 클릭
 - 품목 코드 등 조회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스페인어만 가능) 이상이 없는 경우 'Derechos e impuestos' 버튼 클릭
 - TRATAMIENTO GENERAL 테이블이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율이며, FTA 체결국은 별도 테이블로 제공
 -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가 관세를 의미하며, IVA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입부가세(12%)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화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돼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부쳐진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Poliza de Importacion) 또는 중미 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Factura comercial)
- 선적서류(Carta de Porte, Guia Aerea, Conocimiento de Maritimo)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 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Reimportacion)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과테말라 국세청은 세관 수입신고서를 전산 처리하므로 통관수속 시간이 훨씬 단축됐으며, 국제특배의 경우는 물건 도착 이전 Invoice만 있으면 통관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배송할 수 있다.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며, 또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Invoice 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2002년 5월부터는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통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2) 서류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 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되거나 적색 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 신호가 떨어져 전량조사를 하는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화물의 반출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 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인보이스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가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 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 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 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 신호가 떨어져 전량 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 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 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 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부쳐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 내 무역 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 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 직원들이 상업 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 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부터 과테말라 주요 항만 및 국경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20%로 크게 늘면서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과 통관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의 수입화물 검사 때문인데,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통관 관련 최근 이슈는 아래와 같다.

2017년 5월 16일 과테말라 주요 언론들은 검찰과 국세청이 보세가공 수출기업(마길라업체) 들에 적용되는 수출용 원자재 관세 유예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대규모 밀수조직을 적발한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세금 포탈액만 5천9백만 과테말라 케찰(약 8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이 체포한 밀수조직 관련자에는 세관 직원, 전·현직 마길라회사 직원, 통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세금포탈, 범죄수익 은닉, 범죄단체 조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마길라 관세 유예제도 악용 사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74건으로 내수용 물품을 마길라 업체용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수입하였으며, 상기 세금 포탈액 외에 벌금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밀수업자들로부터 징수할 비용은 최대 117,945백만 과테말라 케찰(약 16,047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최대 섬유산업협회(VESTEX) Alejandro Ceballos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섬유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이러한 밀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협회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면장 소진, 관리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MARITIMA EXPRESS, S.A.(MAREX)

주소	km 13 punto 50, Carretera a Barcenas 6-50, zona2, Villa Nueva,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6671-7300
이메일	jooha.lee@marex.cc
홈페이지	http://www.marex.cc
비고	한인 대표(이주하 사장)가 운영하는 유일한 업체로 중미 전지역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SKYPE ID) Ricardo.lee95 * 2018년 12월 확인 기준, 홈페이지 개편 중으로 상기 주소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 MAERSK GUATEMALA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 Atlantis, Of. 501-504,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379-7272
이메일	gmalogmng@maersk-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maersk.com/local-information/guatemala/
비고	머스크 그룹의 과테말라 지점으로, 무역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 TRANSMARES INTERNACIONAL, S.A.

주소	Diagonal 6, 10-01, zona 10, Edif. Las Margaritas, Nivel 8,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429-8191
이메일	mngtrans@transmares.net
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transmaresinternacional/
비고	일본 통합법인 ONE의 현지 에이전트이다. 별도 홈페이지는 없으며 페이스북 계정만 보유하고 있다.

○ KUEHNE + NAGEL

주소	Diagonal6 10-50, Edificio Interamericas World Financial Center, Oficina 1204, Nivel 12,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364-5060
이메일	info.guatemalacity@kuehne-nagel.com
홈페이지	http://home.kuehne-nagel.com
비고	스위스계 글로벌 물류기업의 과테말라 지점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법 개요

○ 외국인 투자법

기존의 타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내용을 통합해 시행령(Decreto 9-98)호로 발표된 1998년의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n Extranje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가는 직접 또는 과테말라 국민이나 기업과 합작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승인 철폐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전 재산권 인정 및 몰수, 내부적 2·3중 과세 금지
- 외국 기업은 과테말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보호를 받으며 과테말라의 법률 및 사법시스템에 종속됨
- 교통, 무선통신, 위성통신 및 주택건축 분야에 대한 과테말라 국내 자본의 참여조건 폐지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투자청(Invest in Guatemala) 설립
- 국내항공 및 육상운송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철폐(2004년 개정법)

한편 1995년의 개정 중앙은행법(Ley Orgnica del Banco de Guatemala)에 따라 외국은행은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에 등록만 하면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 긴급고용법(19-2016)

WTO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임가공 수출장려법(마킬라법, 29-89)과 자유무역지대법(65-89)은 2015년말 부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2016년 3월 말 새로이 제정된 것이 바로 긴급고용법(19-2016)이다. 기존 마킬라법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복혜택 불허) 동일기업 대상의 면세혜택(재허가) 갱신 불허
- 명의 변경을 통한 반복적 혜택 제공을 불허하고 관리감독, 감시 강화
- (내수허용) 내수 판매를 허용하는 신규조항 추가
- 단,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에 등록된 '서비스사용자'를 경유한 내수 판매 허용
- (원부자재 감시강화) 원부자재의 타용도 이용 금지
- 원부자재 소요량을 국세청(SAT)에 수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전자시스템 등록) → 수취 누락, 밀수 악용 시 관리소홀에 따른 벌칙 부여
- (고용주의무 강화) 사회안전청(IGSS)회비 납부 준수 의무 강화
- IGSS 납부기록을 월별 제출하고, 노동부에 연간 직원명세서 제출 의무화
-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IGSS 미납 또는 위반사례에 대한 판결 확정 시 면세혜택 중지 등의 징벌적 조치 수반

또한 새 긴급고용법안은 혜택업종을 섬유산업 생산자(HS 11부 또는 50-63류), 서비스제공자(콜센터, SW개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존 마킬라법(29-89)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받는 업종은 새 법령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 법안은

기존 마길라법 대비 개선된 공정보완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전 법과는 달리 공동수출자, 하청계약자 모두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재 또는 용역 구매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도 새로이 추가됐다. 긴급고용법(19-2016)은 기존 자유 무역지대법(65-89)에 대한 개혁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WTO 권고에 따라 혜택대상자의 명칭이 서비스사용자로 변경되며, 주류, 차량수입, 식음료/사료,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혜택 제외 업종도 대거 확대된 바 있다.

아쉽게도 하위법인 시행령은 마길라법에 관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 발표가 되었고(2017년 1월), 자유무역지대법에 관한 부분은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 및 문화유적 관련법

과테말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보호규칙(Reglamento de Evaluación, Control y Seguimiento Ambiental)에 따라 환경자연자원부(MARN/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의 환경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고학적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 인근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문화스포츠부(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local company)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경우는 branch office,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대리인(mandatario) 위임장(과테말라인 변호사)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비용 납부 영수증 등

○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한다. 투자 절차에 필요한 작성양식은 경제부 산하 외국인 투자 one-stop 서비스 창구 (Ventanilla Agil)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mineco.gob.gt/RegistrarEmpresa.aspx>

일반 주식회사(SOCIEDAD ANONIMA)는 MINEGOCIO.G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등기소, 국세청, 사회보험청(IGSS), 노동부와 연계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회원 가입 이후 부처별 신청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minegocio.gt>

3) 법인 설립 관련 상법 개정 내용 요약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상법이 발효되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40년 만의 상법 개정으로, 과거 한달이 소요되던 설립기간은 3일 내로(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최소자본금은 과거 5,000 에서 200과테말라케찰로 대폭 줄이는 등 기업 설립 여건을 대폭 개선시킨

것이 핵심이다. (관련 당국이 새로운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지하는 대로 해당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제도

과테말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과거 수출장려법(구. 마킬라법, 29-89)과 자유무역지대법(65-89)을 제정해 운영해오다, WTO의 권고에 따라 2015년 12월 말 전면 폐지되었다. 그간 과테말라는 WTO 국제협약에 근거, 산업 육성을 위해 봉제 등 임가공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법인세 면제, 부가세 유예/환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유예기간을 2015년 말로 설정하고 대체법안 마련을 과테말라 정부에 권고했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3월 상기 2개 법령의 대체법 격인 긴급고용법(19-2016)이 국회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마킬라법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발표되고(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시행령이 없는 부문은 상위법만으로 섬유산업 및 BPO 업종에 대해 수출/내수와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이 정의하는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복혜택 불허) 동일기업 대상의 면세혜택(재허가) 갱신 불허
 - 그동안 묵인되어온 명의 변경을 통한 반복적 혜택 제공을 불허하고 향후 관리·감독, 감시 강화
- (내수허용) 내수판매를 허용하는 신규조항 추가
 - 단 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서비스사용자'를 경유하여 내수시장에 판매
- (원부자재 감시강화) 원부자재의 타용도 이용 금지
 - 원부자재 소요량을 국세청(SAT)에 수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전자시스템 등록)->수치 누락, 밀수 악용 시 관리 소홀에 따른 벌칙 부여
- (고용주의무 강화) IGSS 보험료 납부 준수 의무 강화
 - IGSS납부 기록 월별 제출, 노동부에는 연간 직원명세서 제출 의무화

이번 긴급고용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대 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할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테말라 국회는 동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및 조업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득권의 심각한 침해를 입기도 했다.

아울러 긴급고용법(19-2016)이 보장하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수입 관세(DAI), 수입부가세(IVA) 적용 일시 중단
- 10년간 소득세(ISR) 100% 면제
- 일체의 수출세 100% 면제 등

2) 투자 장려 분야

- 농산물 가공

전통적 농업국인 과테말라는 전 세계 제5위의 설탕 수출국이며 과테말라산 아라비카(arbica) 커피는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 바나나, 카르다몸(생강의 일종) 등도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와 같이 농업이 발달된 배경에는 정부와 Asazgua(과테말라 설탕협회) 등 민간부문이 상호 협조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한 전략적 개발 노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

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산업은 과테말라의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 분야이다.

농산물 가공분야 투자 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인구 3억 2,500만 명), 멕시코(1억 명) 및 중미(3,700만 명)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
- 360가지 이상의 미(微)기후에 따른 농산물 원자재의 다양성
- 농업분야의 풍부한 숙련 노동력
- 포장산업(플라스틱, 카톤, 유리 및 알루미늄 등) 발달
- 태평양 및 카리브해의 항구를 통한 화물운송 용이
- 관련 단체(AGEXPORT 등) 지원 등

○ 제조 및 조립산업

현재 과테말라의 주요 제조업은 대부분 섬유봉제 및 식품생산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 과테말라 정부는 전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조립생산을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DR-CAFTA를 활용,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 콜센터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콜센터 및 BPO 산업은 과테말라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분야로, AGEXPORT에 따르면 ALLIED GLOBAL, ALORICA, ASISTENCIA G&T, ATENTO, AVALON, CAPGEMINI, CONDUENT, GENPACT, GRUPO PRONTO BPO, ICS, NEARSOL, ONELINK, TELUS INTERNATIONAL, TU SALUD GLOBAL, XEROX SERVICIOS COMPARTIDOS, 24/7 CUSTOMER 등이 진출, 영업 중에 있다. 과테말라 콜센터의 서비스지역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멕시코, 미국 등이나 스페인, 캐나다까지 서비스하는 콜센터도 존재한다.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에서는 비교적 첨단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콜센터/BPO 투자진출로 창출된 일자리는 콜센터 기준 36,900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중 27,000여명 정도는 영어/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콜센터 직무와 관련된 직접 고용으로만 제한한 것으로 관계된 업종의 간접고용은 약 10만여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 콜센터 및 BPO 위원회(Comision de Contact Center y BPO)

- (담당자) Guisela Flores
- (E-mail) bpoguatemala@agexport.org.gt
- (전화) +502) 2422-3684

○ 관광

과테말라는 1979년 UNESCO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은 Antigua시(중남미 도시 중 스페인 식민시대 모습이 가장 잘 보존돼 있음) 및 Tikal의 마야유적 외에도 이사발(Izabal) 호수 및 카리브 해안, 아띠틀란(Atitlan) 호수, 빠까야(Pacaya) 화산 등 역사와 변화 무쌍한 자연환경이 겸비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관광업은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관광객 수와 외화 수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부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성형, 미용, 웰빙 문화를 접목한 의료 관광 산업도 부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1/3 정도면 과테말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관광객을 맞아들일 인프라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 2011년도 말 호텔 객실 수는 약 4만 8,000실 정도이다(모텔, 게스트하우스 포함). 이에 따라 각종 등급의 호텔 건축을 포함한 관광 인프라 개발은 유망한 투자대상 분야가 되고 있다. 연간 방문 관광객 수는 약 342만 명(2014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전년도 1월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2015년 4월에는 전년도 4월 대비 6.2% 증가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과테말라를 방문하는 여행객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테말라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분야 투자의 경우 관광법(Ley de Turismo/Decreto 1701, 22-71, 22-73, 68-85)에 따라 과테말라 또는 중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건축자재, 관련기계, 전기기구, 차량, 선박, 식탁용 철물, 가구 및 엔터테인먼트 장비 등의 수입 시 10년간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 구조물의 확장 또는 건물 신축 시 부동산세도 면제 된다. 최근 과테말라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테마관광을 적극개발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의료관광, 생태관광, 마야문명체험, 국제컨벤션 연계관광 등이다.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환경보호법(Ley de Proteccion y Mejoramiento del Medio Ambiente/Decreto 68-86) 및 재생 에너지 개발촉진법(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de Proyectos de Energia Renovable/Decreto 52-2003) 등에 의해 기계류 및 장비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도 면제된다. 2003년 개정법에 의해 소득세 감면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력, 지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화력발전 제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본재는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 원유 개발

석유 프로젝트의 경우 탐사 및 채굴 비용의 100%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5년간 생산요소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고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담보 없이 관세 부과도 유예된다. 또한 해외에 외환보유가 가능하며 유전 발견 시 매장량 및 질에 따라 탐사 및 시추비용을 100% 보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유업체로는 Perenco(프랑스), Petro Latina(영국), Petro Energy(멕시코) 등이 있다.

○ 기타

카리브 해안지역의 주요 산업공단인 Santo Toms de Castilla 자유무역지대 및 CACAO 산업공단 등의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공단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를 받는다.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12년간 소득세도 면제된다. 상기 공단 이외의 보다 소규모 산업공단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특별한 투자금지분야는 없으며 다음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이 있다.

1) 회계감사

외국 기업이 직접 영업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설립된 과테말라 회계업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상법 213조).

2) 보험

외국 기업이 보험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과테말라 상법상의 주식회사(S.A./ Sociedad Annima)를 설립해야 한다(시행령 473호 1조). 그러나 DR-CAFTA(중미자유무역 협정) 회원국 업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상호로 영업이 가능하다.

3) 임업

과테말라 삼림청(INAB/Instituto Nacional de Bosques)은 자국인 및 자국기업에게는 삼림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개발권을 부여하나 외국인에게는 부여치 않고 있다(산림법/시행령 101-96호).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 시에는 최소 2만 s/m 이상의 임야를 구입, 등기해야 한다.

4) 부동산

부동산이 주 사업분야가 아닌 한 외국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가 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제한한다.

5) 운수업

지상운수업은 지분의 60%, 항공운수업은 51% 이상을 과테말라 기업이 소유하여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대부분의 생산, 물류 관련 배후 자원이 과테말라시티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지방 거점도시 투자는 전무하다. 명실상부한 과테말라 제2의 도시인 깨찰테낭고(QUETZALTENANGO)만 해도 기업활동은 인근지 소비재 수요에 대응키 위한 제화, 제빵 등의 가내수공업에 국한되며 이하 지방도시들은 투자처로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이다. 섬유 분야를 비롯한 제조업으로 국내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은 비야누에바(VILLA NUEVA), 아마띠틀란(AMATITLAN), 팰린(PALIN), 에스퀸틀라(ESCUINTLA) 등 시티에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이다.

임가공업과 같은 수출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 특히 최근 발효된 긴급고용법(기존 마킬라법 대체법)이 자유무역지대 입주제한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내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중에는 자유무역지대 바깥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교통 체증 심화, 오폐수 처리 등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등으로 투자 입지로서의 매력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18년 2월 12일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가 발표한 2018-2032 국가경쟁력강화정책은 향후 전국적으로 9개 권역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 개혁 과제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9개 도시들인데,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한 배후지역의 투자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9개 권역별 주요 도시는 아래와 같다.

1. 안티구아(ANTIGUA, 관광), 2. 산호세(SAN JOSE, 해운), 3. 깨찰테낭고(QUETZALTENANGO), 4. 우에우에테낭고(HUEHUETENANGO), 5. 코반(COBAN), 6. 플로레스(FLORES), 7. 사까파(ZACAPA), 8. 푸에르토바리오스(PUERTO BARRIOS, 해운), 9. 레탈올레우(RETALHULEU) 등

산업단지

◦ CIPLESA

규모	32,199.90 s/m
위치	37 Avenida 2-77 zona 7 Colonia El Rodeo,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3.22 U\$/월(부가세 IVA 포함) * 임차료는 입주업체 개별 협상으로 상이해질 수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CENTRO INDUSTRIAL PARA LA EXPORTACION, S.A. ○ 전화번호: +502) 2470-6900(ext. 1220) ○ 이메일: leticia.estrada@denimatrix.com ○ 담당자: LETICIA ESTRADA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인 타운에서도 가깝다.

○ ZONA FRANCA INSSA

규모	2,938.50 s/m
위치	Calzada Roosevelt 5-70 zona 2 de Mixco,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6 U\$/월(부가세 IVA 포함) * 임차료는 입주업체 개별 협상으로 상이해질 수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INVERSIONES NUEVO SIGLO, S.A. ○ 전화번호: +502) 2429-9050 / 2432-2884 ○ 이메일: administracion.zf@inssafreight.com ○ 담당자: JORGE RAMOS
비고	과테말라시티에 인접한 므스코시(MIXCO)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 한인 타운에서 가깝다.

○ SADINSA

규모	9,562.07 s/m
위치	26 Avenida 08-50 zona 4 de Mixco, Colonia El Naranjo,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5 U\$/월(부가세 IVA 별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SAADE INVERSIONES, S.A. ○ 전화번호: +502) 2428-6900 ○ 이메일: liz14209@hotmail.com ○ 담당자: LIZ QUIROA
비고	과테말라시티에 인접한 므스코시(MIXCO)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ZOFRACRO

규모	9,650.00 s/m
위치	18 Avenida 40-23, Zona 12, Guatemala
임차료	제품가(CIF 기준)의 1.5% 부과 *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 100 U\$/월 부과(IVA 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ZONA FRANCA CROPA, S.A. ○ 전화번호: +502) 2462-4300 ○ 이메일: irene.ayala@zofracro.com ○ 담당자: IRENE AYALA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ZOFRACSA

규모	7,801.49 s/m
위치	33 Calle 27-01, Zona 12,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7 U\$/월(부가세 IVA 별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ZONA FRANCCAS ACTUALES, S.A. ○ 전화번호: +502) 2442-1694 ○ 이메일: zofracsa@yahoo.com ○ 담당자: OSCAR QUINONEZ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산업단지 개별 접촉)〉

주요 지역별 여건

○ 비야누에바(VILLA NUEVA)

- 면적: 112km²
- 인구: 301,907명
- 주: 과테말라주
- 주요 산업: 의류봉제 임가공업, 플라스틱 가공업 등
- 비고: 과테말라시티 인접 도시

○ 아마띠틀란(AMATITLAN)

- 면적: 204km²
- 인구: 125,000명
- 주: 과테말라주
- 주요 산업: 의류봉제 임가공업, 플라스틱 가공업 등
- 비고: 과테말라시티 인접 도시

○ 팰린(PALIN)

- 면적: 88km²
- 인구: 62,127명
- 주: 에스핀톨라주
- 주요 산업: 의류봉제 임가공업, 제약 등
- 비고: 과테말라시티와 산호세항을 잇는 CA-9고속도로 상에 위치

○ 에스핀톨라(ESCUINTLA)

- 면적: 332km²
- 인구: 68,000명
- 주: 에스핀톨라주
- 주요 산업: 사탕수수 재배 및 설탕생산 등
- 비고: 태평양 대표 항만인 산호세항(PUERTO SAN JOSE), 깨찰항(PUERTO QUETZAL)과 근접 거리에 위치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295.55	1,388.9	1,220.8	1,184.6	1,146.7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33.98	106.4	116.7	116.7	180.1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5	1	8,001	3	45
2015	4	2	655	5	154
2016	3	2	220	9	156
2017	7	3	15,160	14	14,240
2018	1	1	3,000	2	1,3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1	8,001	3	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2	655	5	1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제조업	1	1	200	7	1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2	1	20	2	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2	14,880	11	14,060
숙박 및 음식점업	4	1	280	3	18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3,000	2	1,3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G전자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지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 IT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삼성전자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지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휴대폰, TV 등 가전

모기업명	삼성전자
------	------

○ 센텍사(CENTEXSA)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봉제)
모기업명	세아상역

○ 한세 과테말라(HANSAE PINULA)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니트 및 우븐(니트로 시작하여 우븐 공장(MODAS APPAREL)을 별도 인수하면서 취급 품목 확대)
모기업명	한세실업

○ 모다스 코톱(MODAS KOTOP)

진출년도	199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니트
모기업명	한솔섬유

○ 광림통상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의류
모기업명	광림통상

○ S.W.과테말라

진출년도	1997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OEM 생산
모기업명	신원

○ 영신 과테말라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염색
모기업명	영신물산

○ 과테정우섬유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원단 생산
모기업명	정우섬유

○ 삼성제침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봉제기계용 바늘
모기업명	삼성제침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 기업은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 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법 215조가 정한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보통 현지 법인은 상법 215조 상의 합병,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를 의미하며, 지사는 상법 215조 상의 외국 기업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과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가 다르므로 법인 등록 이전에 정하여 이에 맞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임시 법인의 경우는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로 등록 시 별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액 200게찰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 보증금을 50,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외국 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한다. 예컨대 기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 수는 10,161건인 반면 외국 기업 수는 30건에 그쳤다.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상법이 발효되었는데,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는 40년 만의 상법 개정으로, 과거 한 달이 소요되던 설립 기간은 3일 내로(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과거 5,000에서 200과테말라케찰로 대폭 줄이는 등 기업 설립 여건을 대폭 개선시킨 것이 핵심이다.

지사

현지에서는 지사를 SUCURSAL DE SOCIEDAD EXTRANJERA로 부른다. 외국 기업 설립 시 유형은 지사(SUCURSAL) 또는 대리점(AGENCI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구분은 따로 없다.

상법(CODIGO DE COMERCIO) 215조(ARTICULO 215)에 따르면 외국 기업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됐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
- 회사의 적법이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에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대리인(mandatario) 위임장(과테말라인 변호사)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 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모든 서류는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 과테말라 외교부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 제출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업 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NIT)을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 모기업의 설립 등기 관련 서류 등

연락사무소

과테말라 상법(CODIGO DE COMERCIO)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과테말라에서는 SOCIEDAD ANONIMA(약어로 S.A.), 즉 익명 회사를 주식회사로 일컫는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최소 2명의 주주, 200과테말라케찰의 최소자본금만 있으면 바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주주는 주식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일반 주식회사는 MINEGOCIO.GT라는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등기소, 국세청, 사회보험청(IGSS), 노동부와 연계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부처별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minegocio.gt>).

유한책임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약어로 LTDA. / CIA. LTDA)로 일컫는다. 최소 2인에서 20인까지의 주주 구성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과테말라 현지에서는 매우 드문 기업 설립 형태이다.

개인사업자

EMPRESA INDIVIDUAL로 일컫는다. 투자자 수는 소유주 1인이어도 무방하며 최소 자본금은 2,000 과테말라 케찰이면 가능하다.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기타

이 밖에도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합자주식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등이 상법상 가능하다. 그러나 대개 주식회사(S.A.) 설립을 선호하며 기타 유형의 회사 설립은 매우 드문 편이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o Bufete Cuestas PPQ (Abogados y Notarios)

전화번호	+502) 2383-2100
주소	19 Calle 5-47, Zona 10, Edificio Unicentro, 8 nivel, Oficina 801,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uestasppq.com
이메일	info@cuestasppq.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중미 전체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이다.

○ Central Law

전화번호	+502) 2383-6000
주소	Av. 15. 18-28, zona 13, Of. 101, Guatemala City,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entral-law.com
이메일	jpcarrasco@central-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중미/도미니카공에 진출한 중미지역 최대 로펌이다.

○ Alegalis

전화번호	+502) 2503-3777
주소	2da Calle 24-00 Zona 15, VH II, Edificio DOMANI, Oficina 701, Guatemala, Guatemala, C.A
홈페이지	http://alegalis.com
이메일	kbouscayrol@alegali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중미 전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LEGIC그룹 산하 과테말라 로펌이다.

○ Asensio Andrade Flores(SFERA)

전화번호	+502) 2317-1515
주소	P7a. Avenida 5-10, Zona4, Centro Financiero, Torre I, Nivel 10, Oficina3, Guatemala
홈페이지	http://aaflaw.com/en/
이메일	ignacio.andrade@aaf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스타리카 SFERA 로펌그룹과 연계된 현지 법무법인이다.

○ BLP(Business Law Partners)

전화번호	+502) 2225-7000/2225-7050
주소	Diagonal 6 10-50, Zona 10, Edificio Interamericas, Torre Norte, Oficina 801.,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blplegal.com
이메일	amartinez@blp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중미 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로펌이다.

○ DELOITTE

전화번호	+502) 2384-6500
주소	Eurolaza World Business Center, 5a Avenida, 5-55 Zona 14, Torre 4, Nivel 8,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2.deloitte.com/gt/es.html
이메일	kromero@deloitt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글로벌 회계법인이나, 회계 관련업무 외에도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상법 218조의 외국 기업의 청산 조항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1)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 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는 약속서, (2) 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됐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테말라의 기업 청산 및 철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단계) 등기소 내 BANRURAL 지점에서 신청양식(Formulario de Inscripcion de Asambleas) 구입 또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2단계) BANRURAL 지점 또는 온라인으로 인지세(Q.150) 납부
- (3단계) 등기소 창구에 작성양식 및 청산에 대한 주주총회 동의서(원본, 사본 포함) 등 제출
- (4단계) 등기소 내 BANRURAL 지점에서 해산신청서(Inscripcion de la Escritura Publica de Disolucion) Q.300, 고시문(Edicto) 발행수수료 Q.30, 고시문 당 Q. 200
- (5단계) 등기소 창구에 관련 서류 제출
- (6단계) 청산인 임명 양식(Formulario de Auxiliares de Comercio) 구입 및 작성
- (7단계) 관련 서류 제출
- (8단계) 청산확인서 제출 등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7.72058과테말라케찰(2018년 12월 6일 과테말라중앙은행 고시)

대출-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46
비고	대출 사무직 초임은 현지기업,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월급 기준 1,000달러는 영어 구사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며, 현지 기업의 경우 800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급여 수준은 영어 구사력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나 다국적 제약회사 등은 평균 임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한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과테말라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공장설립 당시에는 사규 1부 및 각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노동총국/Direccin General de Trabajo)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사회 보장 기구(IGSS/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에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 투자 업체에서는 관련 업무를 현지인 노무사에게 일임시켜 처리하고 있다. 개별적 고용 시 고용계약은 근로관계 개시일에 서명해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용 후 계약의 갱신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매번 별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회보장기구(IGSS)에는 매달 인원 변화를 보고해야 한다.

1) 외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 시 법적으로는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는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내 고용총국(Direccin General de Empleo)에 신청한다. 외국인 고용은 해당 업체 총 고용인원의 10%,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과테말라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은 예외이다. 노동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에 투입 가능하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발급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 중소 규모 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노동부의 업체 실사 또는 미국 바이어의 공장 실사 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취득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 취득은 필요하며 따라서 과거 노동국이나 이민국 퇴직 관료 등 선이 닿는 인사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기도 한다.

2) 관리인력 고용

경영층, 매니저, 관리자, 감사, 부서장 등의 관리인력은 원칙적으로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 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 노동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 고용신청서
- 신청자가 당해 기업의 법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피고용자 여권 사본(거주비자 첨부/거주비자 없을 시 비자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피고용자의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부담 공증서류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과테말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수 및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한 확인서
- 피고용인의 직위가 명시된 문서 사본
- 스페인어 어학능력 증명서

- 외국인 고용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분야에 대한 과테말라 노동자의 교육훈련 계획
- 외국인고용 신청서 1매당 3,000과테말라 케찰(약 400달러) 납부 영수증

3) 기술인력 고용

과테말라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의 고용 시 상기 서류 외에 기술자격증명서(San Carlos 대학 또는 관련단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테말라 노동자의 교육훈련 계획도 제출한다.

4) 일반 노동자 고용

일반 노동자 고용 시에는 상기 서류 외에 당해 노동자가 최근 근무한 기업에서 발행한 추천서(과테말라 영사 서명 필요)도 제출한다.

근로시간

1) 정규 근로

주간 근로(오전 6시~오후 6시)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비록 과테말라 노동법은 주당 48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우선하는 과테말라 헌법 제102조는 44시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을 해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환경인 경우 주간 근로를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농업, 목축업 및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당 44시간을 지켜야 한다. 야간 근로는 1일 6시간, 주당 36시간, 주간 근로와 야간 근로가 혼합된 혼합 근로는 1일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 근로

정규 및 연장 근로를 합쳐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보안 및 경비분야 예외). 다만 근로자가 정규 근로 시간 중 발생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작업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가

1) 유급휴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된다. 1주의 기준은 회사에 따라 5일 또는 6일로 정한다.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도 유급휴가에 포함된다. 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유급 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기본급의 50%)이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한 각 연도에 대해 최소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근로자가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150일을 근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으나, 휴가를 위한 근로일수가 충족되기 이전 또는 휴가권을 얻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일에 비례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출산휴가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 30일과 출산 후 54일간 100%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는 출산 이후로 이월된다.

3) 경조/기타휴가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3일, 결혼 5일,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생 시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유급휴가를 허용한 경우도 인정된다.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노동법 제77조에 의거,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가 근로 중 공개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근로와 관련해 모욕을 주거나 비방, 대항하는 경우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기 행위를 동료 근무자에게 행해 질서가 심하게 무너지거나 작업 중단을 초래한 경우
- 근로자가 작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근로와 관련해 모욕을 주거나 비방, 대항해 작업장 내 공동생활 및 화합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범죄 또는 실수로 사용자, 동료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근로자의 고의, 부주의, 태만으로 기계, 공구, 원자재, 생산품 및 기타 근로와 관련된 물건에 즉각적 또는 의심할 여지없이 실질적 피해를 준 경우
- 근로자가 제63조 제9항에 언급된 비밀(상품의 기술, 영업 및 생산관련 비밀 또는 회사내부 관리상의 비공개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월(月)에 2일간 전일을 연속적으로 결근하거나 또는 매번 반일씩 6일간 결근한 경우(사용자가 근로자가 결근 중이어서 해고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함)
-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의 회피를 위한 예방조치 또는 지시절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나 그 대리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명하게 지시한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1차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제64조의 금지행위(아래 참조) 또는 적법하게 승인된 내부근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술에 취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사용자의 재산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는 경고가 필요 없음)
-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 또는 직속상관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 중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 근로 중 작업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헌법의 민주적 규정에 반하는 선전을 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술에 취하거나 환각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비정상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제공한 비품이나 도구를 정상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 중 또는 작업장 내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단, 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 또는 근로도구나 비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칼이나 송곳 등을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근로규칙 위반행위 포함,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명백한 사보타지 행위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자격, 조건, 지식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명백히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제출한 신상조회서 또는 개인증명서 등이 허위로 확증된 경우, 특정 분야 근로를 위해 고용됐으나 당해 근로수행 능력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 근로자가 중범죄로 체포돼 형벌을 받거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근로자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 시 기타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 등

상기의 경우 외에도 근로자가 형법의 제재를 받으면 사용자의 소송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해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퇴직금

1) 퇴직정산금(Pago de Prestaciones Laborales)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에는 아래와 같이 퇴직정산금을 지급하고 고용계약 해지서(Finiquito Laboral)에 노사 간 서명, 보관해야 한다.

- 당해 월 급여(근무일수 기준)
- 미휴가 일수 : 연간 15일 기준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로 환산 지급
- Bono 14 및 Aguinaldo : 연간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 기준 근무일수로 환산 지급

2) 해고수당(Indemnizacin)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해고 시에는 퇴직 정산금 외에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해고수당은 근무기간 1년당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를 지급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 당하기 위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여금

노동법에 따르면 1년에 200%에 해당하는 법적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은 매년 7월에 지급하는 BONO 14(보너스)와 12월에 지급하는 AGUINALDO(특별수당)로 구성된다. BONO 14는 시행령(Decreto) 42-92호에 의거, 전년 7월 1일~당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100%를 7월 낱쌌나(Quincena)*에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AGUINALDO는 시행령 76-78호에 의거, 전년 12월 1일~당해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100%를 12월 낱쌌나에 한 번에 지급하거나 두 번에 걸쳐(12월 낱쌌나 및 1월 낱쌌나) 분할 지급 가능하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 낱쌌나(Quincena): 과테말라는 월급제가 아닌 15일마다 봉급을 지급하고 이것을 낱쌌나라고 지칭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사회보장보험(IGSS)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국민연금 항목 참조).

고용보험

해당사항 없음.

산재보험

사회보장보험(IGSS)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국민연금 항목 참조).

국민연금

사회보장보험(IGSS)은 업무상 상병, 질병/출산, 노후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단일 공적보험이다. 3인 이상 작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IGSS)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동 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월 급여의 4.83%, 사용자 부담은 10.67%로 각 근로자당 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다.

기타

사용자는 이외에 근로자 휴양시설(IRTRA) 관리비와 근로자 기술훈련비(INTECAP)로 각 노동자 월 급여의 1%씩을 부담한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과테말라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 및 개인은 과테말라 내에 보유한 자본 및 자산 또는 과테말라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및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Impuesto sobre la Renta)를 납부한다. 세율은 조세법에 따라 순이익의 25% 또는 총수입의 7% 중 1가지를 택해 납부한다. 동 세율은 2015년 확정된 것으로 2018년 12월 기준 현재까지 추가 변동은 없다.

통상 1분기 순소득을 근거로 추정 세액을 매 분기별로 납부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표준 회계 연도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사전승인을 얻어 별도의 회계 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 이득은 소득으로 처리되며 10%가 부과된다(비거주자의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도 동일). 자본 손실은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공제 가능하다.

기타 법정 원천징수율을 보면, 지점이윤/로열티/특허권 및 상표권 수수료는 31%, 배당금은 10%, 이자/라이선스 비용은 해외 송금 시 10%를 부과한다.

감가상각의 경우 정액 감가상각만을 인정하며, 자산별 감가상각률은 아래와 같다.

- 건물 : 매년 5% 이내
- 삼림/과수/농작물 : 15%
- 가구 및 비품 : 20%
- 기계장비 및 운송장비 : 20%
- 공구, 컴퓨터 장비 : 33%
- 기타 자산 : 10%

개인소득세

과테말라의 개인소득세는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과테말라 내에서 발생한 소득(계량화 가능한 부가급부 및 자본 이득, 자본 손실 포함)에 대해 부과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31%까지 4단계로 차등 부과되며, 가장 낮은 15% 세율의 구간대는 연간 소득 65,000과테말라케찰(미화 기준 8,440달러) 이하에 적용된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3만 6,000과테말라케찰의 세액공제가 있으며 보험할부금, 전문서비스 수수료, 의료비용 등도 일정 한도까지 공제된다. 영수증이 첨부되면 총소득의 7%까지 기지급 부가세가 공제된다.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세액 + (실소득 - 소득군별 최저소득) x 세율'이 부과된다. 연간소득이 20만 과테말라 케찰인 경우 3만 2,750과테말라 케찰 + (20만 과테말라 케찰 - 18만 과테말라 케찰) x 0.25 = 3만 7,750과테말라 케찰이다.

단계별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0~65,000케찰: 15%(기본세액 0)
- 65,000 초과~180,000케찰: 20%(기본세액 9750케찰)
- 180,000 초과~295,000케찰: 25%(기본세액 3만2750케찰)
- 295,000케찰 초과: 31%(기본세액 6만1500케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매, 수입, 리스 등의 거래가격에 과세되며 세율은 12%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업 송장 가액 기준으로 과세된다. 과테말라 부가세법 제16조에 의거, 부가세 환급은 수출업체 또는 면세혜택자(외교관 등)에 대한 서비스 판매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외국 업체와 거래 시 부가세 면세 제도가 없다. 2004년 개정법 및 2006년 탈세방지법이 정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2년 미만의 중고차 구입 시 부가세 납부
- 월수입 10만 과테말라 케찰(1만 3,000달러, 환율 US \$1=7.7Q 기준) 이상인 수출업체의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부가세 징수
- 신용·현금카드 업체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세 15% 원천납부
- 5만 과테말라 케찰을 초과하는 모든 지급은 현금 지급 불가하며 은행시스템을 통해 지급

특별소비세

1) 화석연료유통세(Impuesto a la Distribucion de Petroleo Crudo y Conbustibles Derivados del Petroleo)

법령 Decreto 38-92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고급휘발유/항공유 4.70케찰/갤런, 일반휘발유 4.60케찰/갤런, 경유 1.30케찰/갤런이다.

2) 주류유통세(Impuesto sobre la Distribucion de Bebidas Alcoholicas Destiladas, Cervezas y otras Bebidas Fermentadas)

법령 Decreto 21-2004에 따라 부과되며, 맥주/곡물 발효주(HS 2203.0000)는 소비자가의 6%, 와인류(HS 2204 및 2205)는 7.5%, 증류주(HS 2208)는 8.5% 세율이 부과된다.

3) 담뱃세(Impuesto al Tabaco y sus productos)

법령 Decreto 61-77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1보루당 공장도가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4) 시멘트유통세(Impuesto a la Distribucion de Cemento)

법령 Decreto 79-2000에 따라 부과되며, 42.5kg 단위 포대당 1.50케찰의 세율이 부과된다.

기타

1) 관광세

과테말라 정부는 호텔 투숙자에 대해 관광세 10%를 부과한다. 단, 매 30일간 연속적으로 투숙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관광세를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75일간 투숙한 경우에는 1~30일째 1회차 면제, 31~60일째 2회차 면제되며, 61~75일째의 15일간에 대해서는 관광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2) 지방세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Arbitrio Municipal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인소득에 따라 연간 최저 15과테말라 케찰에서 최고 100과테말라 케찰까지 과세한다.

3) 최초등록세(IPRIMA, Impuesto Especifico a la Primera Matricula de Vehiculos Terrestres)

과테말라 정부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내국세인 최초등록세(IPRIMA)를 2012년 7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신차, 중고차에 관계없이 과테말라로 입국하여 처음 등록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일단 등록세가 납부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또는 재등록을 사유로 재차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은 아니다.

4) 단결세(ISO/Impuesto de Solidaridad)

2008년 말까지 시행된 평화협정세(IETAAP)를 대체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순자산 또는 순수익 중 높은 금액을 대상으로 분기별 부과되며 세율은 1%이다. 총소득의 5%를 매달 납부하는 법인세 납부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단결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5) 인지세

민사 또는 상업상의 계약에는 서류 등록비용의 3%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 공급업체의 상업 송장, 수입서류 또는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확정가격의 행위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6) 재산세

과테말라 재산세(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기계류 포함)는 자산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며 주택저당권 매입 시에는 3% 세금이 부과된다.

- 2,000~20,000케찰: 0.3%
- 20,001~70,000케찰: 0.6%
- 70,001케찰 이상: 0.9%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외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8년 12월 기준 현재 외환과 관련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989년 과테말라는 환율 자유화 조치를 단행,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외채 지불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 시 자유시장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 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미세 조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해외 가족송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1993년에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어졌다. 단, 외환 거래는 인가된 금융기관(은행, 환전소, 제2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해야 하고 내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자율권 및 시중은행 감독기능 등을 강화한 1995년의 개정 중앙은행법(Ley Orgnica del Banco de Guatemala)은 2만 과테말라 케찰(약 2,703달러)까지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며 이 법에 따라 외국은행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1998년의 외국인투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 la Inversin Extranjera)은 과실송금 및 투자 자본 회수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2001년의 외환거래법(Ley de Libre Negociacin de Divisas)은 수출 대금의 중앙은행 매각을 폐지했으며 국내외 외환계좌 보유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환리스크를 감소시켰다. 55년간 지속된 구 화폐법을 개정한 2002년의 개정화폐법(Ley Monetaria)은 개인 또는 법인 간 임금 등 각종 계약상의 지급을 외환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외환 규제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는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Resolucion JM 108-2010),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 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3,000달러 이상 입금 시 1) 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 입금자(기업)가 외화 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마다 재량권에 따라 보다 엄격한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외환 거래가 잦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과테말라 제1의 은행인 Banco Industrial은 미화 거래를 월 2,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Banco G&T는 1,500 달러로 더 적다. 이보다 한도가 낮거나 더 까다롭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은행도 많고 심지어는 20달러 화폐 교환에도 제한을 두는 은행도 많아 실제 은행 창구에서 자유로운 외환 거래에는 제약이 많은 편이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은행이 환율 조절을 목적으로 연 5억달러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는 투자자본의 사전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본회수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청산 시에는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a)에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과실송금의 경우 이윤 또는 배당금의 송금 역시 제한이 없으나 통계 목적상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 거주 기업이 법인세(순수익의 31%)를 납부한 경우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배당금 송금 시 10%가 원천 과세되며 배당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10%가 부과된다.

로열티나 수수료 지급 또는 그러한 계약의 기간 및 조건 등에 제한은 없으나 송금 업체는 지급 내역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과테말라 비거주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 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 지급 시 31%가 원천 과세된다. 라이선스 관련 수수료, 수당, 커미션 등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된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WORLD BANK에 따르면 과테말라 총인구는 약 1,691만 명(2018년 11월 추정치 기준)이며, 이 중 60%가 24세 미만인 상당히 젊은 시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4,471달러, 구매력 환산 기준 8,150달러(2017년 추정치)로 중남미에서는 저소득국으로 분류되나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미지역에서는 가장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오늘날에는 50.7%에 육박하고 있는데, 빈곤율 또한 실질 구매력을 갖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외의 경우 1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2.3%이며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은 최근 2.8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 소비에 개방적인 젊은 소비계층의 유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WORLD BANK>

소비 성향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총인구의 65%가 빈곤층이고 30%는 극빈층으로 중산층 형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상·하층으로 양극화된 소득분포구조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및 극히 제한된 도시권에 유효 구매수요가 밀집돼 있다.

2) 소비자 구매 선호도

과테말라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좋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대한 동경, 미국 근무 가족이 많은 인구 구조 특성상 전통적으로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미국 아마존 등을 통한 직구 시장도 매우 활발하다. 최근에는 아시아산 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시장의 구매력을 언급할 때 미국 이민자의 본국 가족송금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이주기구(IOM) 추정 통계에 따르면 과테말라 전체 인구의 38%가 미국에 있는 친척,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인당 월평균 379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통계 수치상의 소득 대비 높은 구매력을 보인다. 본국 송금이 많아지는 소비재 판매 성수기는 어머니날을 전후한 5월과 11-12월이다.

3) 지리적 특성

아울러 과테말라는 중미의 테스트마켓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인근 국가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으로 쉽게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엘살바도르 및 과테말라 유통자본의 중미 다국적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각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구매 의사결정을 본사로 일원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미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소비 성향과는 무관하나, 2017년 7월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이 정식 발효되었고 엘살바도르도 2018년 6월 관세 동맹 편입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중미 북부 3개국 간 실질적인 시장 통합 움직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관세 동맹 덕분에 품목에 따라서는 첫 도착 국에서 관세 등을 납세한 후 FyDUCA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고를 마치면 이후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들의 성향이나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1) 한국상품 인지도

삼성, LG 전자 및 현대 기아차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과 비슷한 품질을 갖춘 저가의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높은 한국 브랜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휴대폰은 HUAWEI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해를 달리할수록 JAC, MAHINDRA, BYD, CHANGHE, ZX, YUTONG, GREAT WALL 등과 같은 중국산 브랜드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등 중국, 인도계 저가 상품의 공세가 한국산 제품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재의 경우 2018년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한 무무소(MUMUSO)의 성공이 과테말라 소비자 성향을 가능할 주요 잣대라 하겠다. 2018년 한해에만 4개 매장을 오픈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국산이라는 이미지 마케팅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하면서 대중의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무역관은 대사관과 공동으로 페이스북 공지 등을 통해 무무소 제품은 한국과 무관함을 공지하며 현지 언론 및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나, 실제 무무소 매장을 방문해보면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등 소비자들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한편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2018년 중미 지역 최초로 화장품 전문 유통망 BEAUTY DEPOT과 K-BEAUTY 팝업스토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 7개 한국산 화장품 업체를 상설 입점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해당 유통망도 한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홍보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제품이라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트렌디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2) 한류 동향

한류 동향은 연계 문화상품 또는 파생 소비재 진출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상품 시장 전망을 가능할 시금석이라 하겠다. 과테말라에서 한국드라마 방영은 2006년 를 시작으로, 등 여러 편의 드라마가 방영돼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의 경우, 반응이 좋아 재방영되기까지 했다. 2018년 들어서는 현지 케이블 채널을 통해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기도 하였다. 우리 영상물이 인기를 끄는 주된 이유로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국적인 한국의 풍경, 한국인 배우의 매력적인 모습, 중남미 콘텐츠가 지닌 친편일률적 주제에서의 탈피 등을 꼽고 있다.

현지의 또 다른 한류 붐으로는 K-Pop을 꼽을 수 있다. 과테말라의 K-Pop 동호회 수는 40여 개이며 상기 동호회를 통합하는 별도의 동호회가 있다.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돼 있고,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며 부정기적으로 K-Pop 경연대회 및 친목 도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이 K-Pop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기존 미국식 Pop 음악을 벗어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위시한 아시아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현지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BST) 음악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자체 팬클럽 모임도 활성화되는 등 한류 문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한다. 선금 30%, 선적 후 70% 등의 방식이다. T/T 송금 후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한다.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하다.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주변 중미국들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중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과테말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한편 상표등록(Registro Mercantil)은 수입업체 또는 에이전트에게 맡기지 말고 현지 변호사 협조하에 한국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현지 식품류 유통업체가 삼양브랜드를 임의로 등록하여 오래전부터 컵라면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삼양라면 제품의 대형유통망 입점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2) 기업 문화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대개 첫 거래는 소량 오더가 일반적이며, 특히 시장조사와 소비자 기호 파악을 위한 시험구매가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기대하고 상담에 임하면 실망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소량 오더를 수용하되, 향후 설득을 통해 거래량을 키워가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약속시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차 연락하는 등 헛수고를 하게 하므로 성사 여부를 미리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와는 달리 이메일 또는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 업체는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더라도 반응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러한 일을 겪고 나면 상대방이 과연 비즈니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중미지역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너 또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 간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오너에 집중되어 있고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에 없는 시간이 많아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실무자가 이를 놓쳐 경영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회신이 늦거나 없다고 실망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사소한 소통상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무역관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무역관 담당자를 참조로 하면, 우리 직원이 별도로 접촉하여 리마인드 하거나 수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메일 수신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인종에 대한 언급은 피하라

과테말라는 전체 인구의 40%가 마야 후손 원주민(인디오)이며, 혼혈(라디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토착 원주민은 수백 년간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이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을 차지하고 있어 그 아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인종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인종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데 이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테말라인에게 ‘당신이 (순수) 백인이냐, 혼혈이냐, 인디오냐, 마야인이냐’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은 큰 실례를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원주민을 의미하는 인디오(Indio) 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민감하다. 한때는 인디오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운동까지 있었다. 또한, 인종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문이나 언급도 피하는 것이 좋다.

2) 중미의 만형으로서의 자부심을 존중하라

과테말라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직후에는 중미연방의 수도로서 기능했으며 역사적으로 중미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특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인접 국가와는 심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대해서는 다소 반감을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는 대국이라고 콧대가 너무 높고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좀 잘 산다고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멕시코나 코스타리카와 비교해가며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멕시코나 코스타리카가 축구를 잘하는데 과테말라는 왜 월드컵에 안 나오느냐 등의 대화는 가히 치명적이다. 반면 과테말라를 정복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의 일’로 여길 만큼 반감이나 적개심은 없다. 참고로 파나마는 역사적으로도 콜롬비아의 한 부분이었던 관계로 중미국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3) 손짓은 조심해서 사용하라

엄지와 검지를 모아 동그라미를 그리면 우리처럼 OK 표시이고, 엄지를 위로 치켜들면 ‘Good’이란 뜻이며 기타 다른 동작도 한국인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손동작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 손을 뻗고 전체 손가락을 벌리는 것이다. 이 동작은 상대방에 대한 욕으로 간주되고 싸움을 걸 때나 사용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4) 여성을 대하는 에티켓

여성에 대한 예의는 서양과 대동소이하다. 차를 타거나 내릴 때는 문을 열고 닫아주는 것이 보통이고, 출입할 때는 여성이 먼저 통과하도록 자리를 내준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와인을 서빙할 때는 나이나 서열순이 아니고 여성이 먼저다.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에는 절대로 나이를 물어서는 안 된다. 설령 젊은 여성에게도 나이를 묻는 것은 결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대 여성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모르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기혼자를 뜻하는 세뇨라(Sra. 영어의 Mrs) 보다는 미혼자를 의미하는 세뇨리따(Srta. 영어의 Miss)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공격적 투자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의류 전문기업, ALCATEX

ALCATEX는 편직, 봉제 생산 라인을 두루 갖춘 수출 임가공 전문기업으로 현지에 자생한 한국계 기업이다. 타 봉제기업들이 경영난, 이견 등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사업을 지속 확장해가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TEXTIVISION(봉제), NITOPIA(편직), STARTEX(무역) 등 3개사를 통합하면서, 오더부터 제조, 공급까지 일괄 수주, 진행이 가능한 종합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라운드, 플로티셔츠 등을 주로 생산하며, POLO(RALPH LAUREN) 브랜드를 주력으로, GUESS, ADIDAS, NEWERA, OUTERSTUFF 등 다수의 유명브랜드에 의류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 국내 중소기업, 금속기와 과테말라 최초 수출

페루프사와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간 최초 접촉 이후, 무역관이 뉴질랜드산 DECRA 브랜드 수입유통업체와의 상담 등에 기반한 현지 시장성 검토를 거친 후 지사화 사업 참가를 권유해 가입했다. 페루프사는 과테말라 시장진출에 대한 강한 욕구로 파격적인 할인 가격, 운임 부담 등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DECRA 등 여타 외국 경쟁사가 차지하고 있는 과테말라 시장을 공략하는 자세를 보였다. 무역관이 15개 이상의 주요 바이어를 접촉한 결과, 페루프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임에도 CINDU, AYCO, Construcentro 등 3개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무역관은 동시에 매년 개최되는 과테말라 건축박람회(Construfer)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를 권유했다. 페루프사는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파나마 종합박람회 (ExpoComer)에 과거 수년 전부터 참가해온 관계로 Construfer 참가에 대한 결정을 주저했다. 이에 무역관이 Construfer가 건축 전문박람회임을 강조하며, 박람회 주최 측과 협상을 통해 1개 부스 비용으로 2개 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페루프사에서 두 전시회에 모두 참가기로 했다. 전시회 기간 중 무역관이 사전 주선한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CINDU사가 페루프사의 에이전트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페루프사는 에이전트 조건으로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8천 장)의 선수입을 제시했으며, CINDU사는 최초 오더로 4천 장에 대한 견적을 요청했다. 금속기와 제품에 대한 HS Code 해석에 대한 문제를 무역관의 협조하에 3자 간 논의를 통해 해소한 뒤 최종 견적을 확정함으로써 페루프사의 대과테말라 최초 수출이 결실을 맺었다.

3) 국산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는 한인 교포기업이 직접 수입 및 유통을 하고 있는 브랜드로 최근 인지도를 크게 넓혀가고 있다. 과테말라 주요 쇼핑몰에 대거 입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마케팅하는 한편, 과테말라뿐 아니라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배달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판매망을 키워가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한국인의 입국 및 체류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양국 간 체결된 무비자협정에 의거하여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 만료 전에 이민청(Direccin General de Migracin)에 방문하면 별다른 인터뷰 없이 1회에 한해 9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수 비자 수수료는 15달러이며 한국인은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단수비자로 충분하다. 복수비자(30달러)는 무비자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장기비자 종류에는 임시체류(Residencia Temporal, 최대 4년)비자와 사업비자(Visa de Negocios, 최대 360일)가 있으며 장기비자 이외에 영주권 (Residencia Permanente 5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곳에 체류해야 하는 주재원의 경우 비자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과테말라 입출국 시 신고되지 않은 고액 현금 소지는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주재국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관련 혐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무거운 범죄이므로, 소지한 현금의 가액(현지화, 미화, 원화를 모두 포함)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1만 달러 초과 휴대 시 세관 신고는 물론 은행거래기록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고액현금을 소지한 채 입국 또는 출국 중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단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전부 몰수되고 형사 고발 조치가 된다. 향후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예외 없이 현장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 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불편 사항이 많이 수반된다. 특히 한국인 사업가, 교포들이 이를 쉽게 생각하고 고액의 유가증권류를 소지한 채 출입국에 나서다가 세관에서 체포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재국 자금세탁방지법(Decreto No. 67-2001) 제25조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이상 휴대 사실을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후 적발되는 경우 해당 현금과 서류 등을 압수 후 범죄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밖에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CAUCA 규정(113조, 578-583조)에 의거, 과테말라 입국 시 허용되는 휴대품 면세통관 물품은 아래와 같다.

- 주류 : 성인 1인당 5리터까지 허용(종류 무관)
- 담배류 : 성인 1인당 500g까지 허용(종류 무관)
- 의약품 :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휴대 약품, 의료용(일회용) 용품
- 식품 : 사탕류 2kg 이내 및 여행자의 필요에 따른 소지품
- 기타 : 일반 면세기준 수화물 외 500\$ 상당의 상품류

다만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세관심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짐이 많거나 박스포장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를 대비해 샘플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함께 해당 상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Sample(서어: Muestra)’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기기를 통해 검사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는 방식으로 세관 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 입국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점등되면 면제, 적색 점등 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엑스레이 및 육안 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문제없이 통과된다. 출장자가 샘플을 직접 수화물로 가져올 때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상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 예외 없이 과세를 하는데, 특히 제품에 샘플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매우 엄격히 적용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단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고 압수 또는 바로 과세에 들어간다. 따라서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해결해볼 요량으로 면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물품을 가져올 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502) 2382-4051~5
주소	5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C.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gt-ko/index.do
비고	긴급전화 : +502) 3368-9333 이메일: embcor.gt@mofa.go.kr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테말라사무소

전화번호	+502) 2445-6461
주소	5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C.A
홈페이지	http://www.koica.org.gt
비고	대사관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

○ 재과테말라 한인회

전화번호	+502) 2445-6461
주소	9 Ave. 14-36, Colonia Alvarado, Zona 3 de Mixco
홈페이지	http://latin-hanin.net/gt/
비고	홈페이지는 오랜기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및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 Programa Nacional de Competitividad de Guatemala)

전화번호	+502) 2421-2464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icio Atlantis, Oficina 302
홈페이지	http://www.pronacom.gt
비고	이메일 : comunicacion@pronacom.org 무역관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

○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전화번호	+502) 2417-2700
주소	10A Calle 3-80, Zona 1, Guatemala
홈페이지	http://ccg.com.gt/web-ccg
비고	이메일: info@camaradecomercio.org.gt

○ 과테말라 제조업협회(Ca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전화번호	+502) 2380-9000
주소	Ruta 6, 9-21, Zona 4, Nivel 12, Guatemala
홈페이지	http://cig.industriaguatemala.com
비고	이메일: info@industriaguatemala.com

○ 과테말라 건설업협회(Camara Guatemalteca de la Construccion)

전화번호	+502) 2387-2727
주소	Km. 8 Muxbal, Res el Prado L. 215, Zona 4, Santa Catarina Pinula,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onstruguate.com
비고	이메일: info@construguate.com

○ 과테말라 수출업협회(AGEXPORT/Asociacion Guatemalteca de Exportadores)

전화번호	+502) 2422-3400
주소	15 Avenida 14-72, Zona 13, Guatemala
홈페이지	http://export.com.gt
비고	이메일: servicioalcliente@agexport.org.gt

○ 과테말라 전국경제인연합(CACIF/Comite Coordinador de Asociaciones)

전화번호	+502) 2410-8323
주소	Ruta 6, 9-21, Zona 4, Edificio Ca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Nivel 9, Guatemala
홈페이지	http://vestex.com.gt
비고	이메일: unice@cacif.org.gt

○ PRENSA LIBRE

전화번호	+502) 2412-5000
주소	13 Calle 9-31, Zona 1,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prensalibre.com
비고	과테말라 제1의 일간지

○ EL PERIODICO

전화번호	+502) 2427-2300
주소	15 Avenida 24-51, Zona 13,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elperiodico.com.gt
비고	과테말라 주요 일간지

○ 온라인행정안내시스템(ASISEHACE)

전화번호	없음
주소	전자정부시스템(별도 주소 없음)
홈페이지	http://asisehace.gt
비고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사이트

○ 온라인등기소(REGISTRO MERCANTIL ELECTRONICO)

전화번호	없음
주소	전자정부시스템(별도 주소 없음)
홈페이지	http://minegocio.gt
비고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기업/법인 등록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원스톱 창구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Asociacion de la Industria del Vestuario y Textiles)

전화번호	+502) 2410-8323
주소	15 Avenida 14-72, Zona 13, Edificio Agexport, 2 nivel, Guatemala
홈페이지	http://vestex.com.gt
비고	이메일: vestex@apparel.com.gt 한국인 담당자 연락처(오새롬 팀장) : +502) 4609-7910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7.7과테말라케찰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58
2	식품	비빔밥	1인분	9.09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9.09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8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작은컵)	1잔	1.9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2l	0.71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600ml	0.88
8	의료	항생제(METRONIDAZOL계열 500mg)	42정	18.02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39
10	교통	지하철요금(없음)	기본요금	
11	교통	택시요금(TAXI AMARILLO, 콜택시)	기본요금	3.2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2.99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93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5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58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3.02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6.49
18	임금	최저임금/월급	법정최저	388.62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688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2.75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과테말라 케찰(Quetzal)로 약칭은 Q. 또는 GTQ.이며, 1케찰 동전을 제외하고 케찰 단위는 전량 지폐로 유통된다. 동전은 센타보(Centavo)라는 단위로 불리며, 1 케찰이 100센타보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 화폐 단위는 1, 5, 10, 20, 50, 100, 200 등 7종이 유통되며, 최고액권인 200케찰은 미화 30달러 수준의 고액권이어서 유통량이 많지 않고 위폐가 간혹 있어 상점 등에서도 신분증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동전은 1과테말라케찰과 1, 5, 10, 25센타보 등 5종이 유통되고 있다.

환전방법

공항보다는 체류 호텔 또는 시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환전 시에는 신분증(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환전수수료를 받는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규정으로 인해 고액 환전 시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하루에 500달러 이상의 환전을 거부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나은 환율로 환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암달러상을 찾는 출장자도 있으나 찾기 쉽지 않고 환전만 전문으로 하는 환전상도 매우 드문 것이 과테말라의 특징이다. 적용 환율은 은행>호텔>공항 순으로 좋은 편이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은 없으며, 대부분 상점, 식당 등에서 VISA, MASTER, AMEX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과거 카드 복제 사고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휴대용 단말기(POS) 이용이 제도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므로 도용사고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휴대용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영세 상점 등에서는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소액의 현금은 항상 지참하는 게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대중교통이 미흡한 상황에서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하다 보니 과테말라시티의 교통 체증은 과포화 상태를 넘긴 지 오래다. 치안이 좋지 않은 점이 시민들의 자가용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데다, 중고차 수입 제한이 없어(중미 유일) 미국산 중고차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 차량 등록 대수 증가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 과테말라시티의 교통 체증은 상당한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따라서 중요한 약속은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이동하거나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일정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주요 간선도로들의 경우 우회로가 없어, 사소한 교통사고나 장마철(4-11월) 일부 구간의 침수가 도시 전체 도로의 극심한 체증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종종 관찰된다.

버스

과테말라시티에는 TRANSMETRO(횡단노선), TRANURBANO(종단노선)와 같은 공영제 시내버스가 존재한다. 굴절형 버스를 비롯하여 신형버스가 투입되고 별도의 버스전용차로, 교통경찰이 상주하는 전용 정류장 등을 갖추고 있어 그나마 이용할 만하나, 간선버스의 성격이 짙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통근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은 개별 운송업자들이 노선 없이 운행하는 지선버스들인데 요금은 1.5과테말라케찰로 매우 저렴하지만, 버스의 노후화가 심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주야간 구분 없이 버스 내 총격, 살인 및 강절도 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특히 눈에 쉽게 띄는 차림의 외국인이라면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시

치안 불안 및 간혹 발생하는 외국인 피습사건 등을 대비하여 외부 이동 시 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택시(하얀 택시)는 가급적 지양하며 콜택시(노란 택시, 초록 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요금은 공항에서 Zona 10 지역의 유명호텔까지는 10달러(75과테말라 케찰) 수준이다. 콜택시의 경우 미터기가 있으므로 가격을 신뢰할 수 있지만, 간혹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잔돈을 챙겨두는 편이 좋다. 2016년 12월 13일부터 우버 택시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사용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콜택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axis Amarillo Express
 - 주소 : 4ta Calle 0-15, Zona 13, Guatemala
 - 전화 : +502) 2470-1515 또는 1766
 - 홈페이지 : <http://www.amarilloexpress.com>
 - 특이사항 : 전화예약 시 픽업 시간을 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카드 등)을 미리 말하면 가능한 차량을 배차(도착 시 차량 번호를 피드백 해주는 등 안전장치 마련)
 - 요금 : 4.8과테말라케찰/km, 정차 시 33초 단위로 0.8케찰 가산(최저요금은 현금 25케찰, 카드 35케찰 등)

- Taxis Verde Express(Taxis Amarillo Express와 같은 회사)
 - 주소 : Av. Ferrocarril 17-13, Zona 12, Guatemala, C.A
 - 전화 : +502) 2475-9595

다. 통신

핸드폰

무선통신은 Telgua(CLARO), Comcel(TIGO), Telefonica(MOVISTAR) 및 Tuenti(MOVISTAR) 등 4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UENTI는 스페인계 MOVISTAR의 알뜰형 서비스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과테말라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현지인들은 선불 요금제를 선호하나, 약정 요금제도 가능하다. 요금은 선불제 이용 시 100과테말라케찰당 100분 통화가 가능한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3배 충전(통신사에 따라 4-6배 충전 프로그램도 존재) 프로모션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후 요금 지불제인 약정제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한국 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고, 가입 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신용 상태를 까다롭게 살피는 편이다.

인터넷(와이파이)

과테말라 통신사에 여권사본, 각종 공과금 영수증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외국인도 약정 계약이 가능하다. 통신회사 대부분이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며, 보통 Telgua(CLARO), Comcel(TIGO), Telefonica(MOVISTAR) 세 사업자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 보통은 케이블TV+인터넷+유선전화 패키지로 상품을 판매하며, 인터넷 속도나 HD급 방송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옵션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용 서비스의 경우 2MB, 5MB, 10MB, 15MB급의 인터넷 속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5MB 정도면 IPTV나 HD급 유튜브 영상을 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보통 인터넷(또는 케이블TV)은 설치에 15일 정도 소요된다.

라. 관광명소

○ 국립문화박물관(구.대통령궁)(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Calle, Zona 1, Guatemala, C.A.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휴무일	공휴일 및 외교단 의전행사일(별도 고지 없음)
명소소개	1943년 완공되어 대통령 집무실과 각 부처 내각이 입주해있던 정부청사로, 당시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가이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8불이다.
비고	전화 : +502) 2239-5000 홈페이지 : mcd.gob.gt

○ 국립고고학박물관(MUSEO NACIONAL DE ARQUEOLOGIA Y ETNOLOGI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7ta Avenida 6a Calle, Zona 13, Guatemala, C.A.
운영시간	화~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일요일: 오전 9시~12시 30분, 오후 1시 30분~오후 4시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
명소소개	마야문명의 유적 및 지역별 마야 소수부족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비고	전화 : +502) 2475-4399 홈페이지 : www.munae.gob.gt

○ 포폴부박물관(MUSEO POPOL VUH)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Calle Manuel F. Ayau(6 Calle final), Zona 10, Guatemala, C.A.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휴무일	일요일 및 공휴일
명소소개	과테말라 명문 FRANCISCO MARROQUIN 대학교 부설 박물관으로 규모는 작으나 마야문명 및 스페인 식민시대 각종 유물을 시대별로 잘 정리, 보존하고 있다.
비고	전화 : +502) 2338-7896 홈페이지 : popolvuh.ufm.edu

○ 라아우로라동물원(ZOOLOGICO LA AUROR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5 Calle Interior Finca La aurora, Zona 13, Guatemala, C.A.

운영시간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과테말라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공항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동물들을 보며 안전하게 산책이 가능하여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명소이다.
비고	전화: +502) 2463-0463 홈페이지: www.aurorazoo.org.gt

○ 공예품시장(MERCADO DE ARTESANIAS LA AUROR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Calle 10-95, Zona 13, Guatemala, C.A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공예품, 그림, 기념품 등을 살 수 있는 전용시장이다.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으므로 출국 전 잠시 둘러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라이라이(LAI LAI)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31-6507
주소	12 Calle 5-27, Zona 9
가격	11-20달러/1인
영업시간	오전 10시~저녁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과테말라 최대 중식당으로 여러 곳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모든 종류의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비교적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 특히 ZONA 9 본점은 덤섬(오후 3시까지)도 가능하다.

○ 아시엔다 레알(HACIENDA REA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80-8383

주소	5a Avenida 14-67, Zona 10
가격	15~30달러/1인
영업시간	정오~오후 11시(일요일은 오후 9시까지)
휴무일	공휴일
소개	과테말라 자본의 고기요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여러 곳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비교적 고가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음식맛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 팔레르모(PALERM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36-7129
주소	4 Avenida y 12 Calle, Plaza Fontabella, Zona 10
가격	30~40달러/1인
영업시간	정오~오후 11시(일요일은 오후 8시까지)
휴무일	공휴일
소개	정통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아사도) 전문 식당이다.
비고	스테이크 식당 중에서는 과테말라시티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식당이며 한인들도 많이 찾는다.

○ 돈데미켈(DONDE MIKE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63-3308
주소	6 Ave. 13-32, Zona 10
가격	25~35달러/1인
영업시간	정오~오후 10시
휴무일	토/일/공휴일
소개	정통 스페인식 음식점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다.
비고	신선한 재료와 올리브유로만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찾는 현지식당이다.

○ 몬타노 스테이크하우스(MONTANO STEAK HOUSE)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60-3135, 2360-312
주소	12 Calle 3-28, Zona 10

가격	25~35달러/1인
영업시간	정오~오후 11시(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휴무일	공휴일
소개	와인과 곁들인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고급 식당이다.
비고	정치인, 기업인 등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 고려정(KOREA HOUSE)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61-4320, 5203-030
주소	4 Ave. 12-63, Zona 9
가격	식사류 기준 9~13달러/1인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중심가인 Zona 10, LA AURORA 국제공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비고	복사시미 등 활어회 전문 음식점이며, 횡감이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명동(MYEONG DONG)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41-5266
주소	11 Calle 05-08, Zona 9
가격	식사류 기준 9~13달러/1인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설날, 부활절 휴무
소개	중심가인 Zona 10, LA AURORA 국제공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비고	한국식 중국음식, 각종 한식 외에도 숯불고기를 전문으로 제공한다.

○ 한국관(HANKUKKWAN)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39-5927
주소	2a Calle 33-14, Zona 7, Calz. Mateo Flores 2a Calle 33-14, Zona 7, Calz. Mateo Flores

가격	식사료 기준 10~13달러/1인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최대 규모 한식당이다.
비고	숯불구이 전문 음식점이다.

○ 향이(HYANG-YI)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233-7210
주소	Calzada Mateo Flores 33-40, Zona 7
가격	식사료 기준 9~15달러/1인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월요일은 오후 5시부터 영업)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이다(한국관 옆 위치).
비고	숯불구이를 비롯한 모든 한식요리를 제공한다.

○ 중국성(JUNGKUKSEONG)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39-3508
주소	36Av. 1-59 Col. Toledo Zona 7
가격	식사료 기준 10~15달러/1인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화요일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한국식 중국음식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 엘에이가든(LA GARDEN)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39-8936
주소	34 ave 1-65 Col. Toledo Zona 7
가격	식사료 기준 10~13달러/1인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휴무일	둘째/넷째 월요일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LA갈비 전문 한식당이며, 이 밖에도 복사시미, 오리 백숙 등도 제공한다. 노래방 기기도 갖추고 있어 회식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웨스틴 까미노 레알(WESTIN CAMINO REA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Calle Camino Real 0-20, Zona 10,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410-5000/2337-4406
홈페이지	http://hotelcaminoreal.com.gt
숙박료	싱글룸 125달러/더블룸 165달러(인터넷, 공항 셔틀 포함, 조식 별도, 22% 세금 별도)
소개	국민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과테말라시티 최고급 호텔이다(5성급). 특히 번화가인 Zona 10 중심가에 있고 공항에서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18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향후 변동 가능하다. 아울러 무료 공항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 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 바르셀로 과테말라시티(BARCELO GUATEMALA CITY)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7 Avenida 15-45, Zona 9,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320-4000
홈페이지	http://www.barcelo.com
숙박료	싱글룸 / 더블룸 80달러(인터넷, 공항 셔틀, 조식 포함, 22% 세금 별도)
소개	3-4성급 호텔이며, LA AURORA 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다. 호텔 내에 다양한 식당, 바가 있고, 옥외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등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2019년 요율은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18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특실 Superior, Club Premium, Duplex은 별도 문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료 공항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 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 클라리온 스위트(CLARION SUITE)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4 calle 3-08, Zona 10,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421-3333
홈페이지	http://www.clarionguatemala.com
숙박료	싱글룸 90달러/더블룸 105달러(인터넷, 공항셔틀, 조식 포함, 22% 세금 별도)
소개	스위트형 호텔이며, 무역관에서 최단거리(한블럭)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 형으로 객실 내 취사도 가능하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다소 취약한 것이 흠이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18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상급 객실 Executive floor 요율은 별도 문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료 공항 셔틀을 운행하고 있어 사전 예약 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2019년 요율은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단계: 여행 유의 및 여행자제

Antigua시 및 Tikal 마야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의 치안은 악화돼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초행자 이거나 현지 거주자든 누구를 불문하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시골여행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습격이나 강탈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미국대사관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자국민 대상으로 Sacatepequez 주에 위치한 Volcn de Agua 등산 시 강도사건에 주의할 것을 공지했고, 실제로 2017년 5월 24일 독일인 관광객 부부가 등반 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총기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또한 2016년 7월 엘살바도르에서 여행 온 가족이 Escuintla 근처에서 4인조 무장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래식 시장이나 구도심 지역, 신호대기 상황이나 교통정체 시 2인조 혹은 4인조 오토바이 무장강도의 습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행 시 귀중품을 다수 소지하거나 달러화를 다량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시내 이동 시는 호텔에서 추천해 준 택시를 이용하되 시외, 시내버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도 공동거주주택의 경우 경비원이 상주하므로 안전한 편이나 단독주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트카로 여행시도 야간이동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현지인 동행 또는 안내인이 동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테말라시청은 자체 통계를 통해 차량 권총강도 빈발 지역을 수시로 발표하는데, 대부분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선도로이며, 차량 통행이 많아 서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일 때가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항상 숙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 과테말라시티 내 차량 권총강도 빈발지역
 - 14 Avenida y Calzada Roosevelt, Zona 11
 - Carril Auxiliar en Villa Linda, cruce al Bulevar Tulam Tzu, Zona 7
 - 1 Avenida y 7 Calle, Zona 7, frente a Estadio del Trebol
 - 12 Calle y 3 Avenida, Zona 9
 - Bulevar Los Proceres y 11 Avenida, Zona 10
 - Avenida de los Arboles, saliendo de la Calle del Puente de la Asuncion
 - 2 Calle de la Colonia Utatlan, Zona 11, de la 39 a la 30 Avenida

과테말라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위험지도를 보면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부촌으로 분류되는 ZONA 14와 ZONA 15가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고 사실상 시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비야 누에바(Villa Nueva), 믹스코(Mixco), 산미겔페타파(San Miguel Petapa) 등 수도권도 대부분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방은 빼땡(Peten), 이사발(Izabal), 사카파(Zacapa), 에스퀀틀라(Esquitla), 치끼물라(Chiquimula) 등이 특히 위험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 가입률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보험 자가 많아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후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으니 경미한 추돌 상황이고 인기척이 드문 곳 또는 시간대에 있다면 사고 수습을 위해 하차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탈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가해자 및 피해자 측 모두 보험을 호출하여 지원을 받으려 한다. 교통이 혼잡한 곳이라면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촬영한 후 길가로 차량을 이동시켜 대기하되, 노상강도 등 2차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 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상황 시

국번 없이 125 또는 128을 누르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 병원은 개인 의원 중에도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의료진이 있으며 종합병원으로는 AURORA, HERRERA, PILAR, CENTRO MEDICO 등이 있다. 대체로 상류층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편이나 신뢰도는 떨어지는 편이다(예: 간단한 중기 수술비가 1,000달러 내외로 청구됨). 민간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이 진료 건당 20-30%이며 지급방식은 본인이 100% 결제 후 영수증 청구를 통한 환불 혹은 민간 의료보험에 알리고 허락을 받고 건당 20-30%를 진료 시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IGSS)은 서비스의 불만족, 기타 서류문제 등의 이유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간단한 두통, 소화제, 감기약 정도는 처방전이 없이도 가까운 약국(Farmacia)에서 구입 가능하며 의약품 수준은 신뢰할 수 있는 편이다.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나 10~30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며, 호텔 투숙 시는 호텔에서 구급약을 지원받거나 리셉션 데스크에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만약 충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중증 외상병원으로 바로 이송 조치하는 것이 좋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신뢰도는 민영 병원이 우세하나, 충상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HOSPITAL ROOSEVELT(+502-2321-7400)나 HOSPITAL SAN JUAN DE DIOS(+502-2321-9191)와 같은 대형 국립병원이 나올 수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주거를 물색할 때는 현지 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개료는 임대인이 첫 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내지 않는다. 대체로 여러 곳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정한다.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균 700~1,800달러 정도이나 최근 공공치안 악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치안이 안전한 지역의 ZONA 14(제 14 지역)의 고급 아파트는 2,000달러를 훨씬 넘는 경우도 많다. 과테말라 시내에서 거주지역으로는 ZONA 14 지역과 ZONA 15 지역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는 과테말라 ZONA 10 등과 가깝고 치안이 우수하며 주변 조경도 훌륭해 거주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이나 고급 단지의 경우 한인 또는 동양인 입주를 거부하는 곳이 제법 많다. 특히 집주인과는 합의를 봤더라도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반대하여 막판에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므로 한인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낭패를 피하는 지름길이다.

가격은 다소 저렴한 ZONA 7, 9, 11, 13 등의 지역도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조용한 곳도 있으므로 잘 판단해 선택한다. 다만 주택을 고를 때 유흥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인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버스 정류장 앞 등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는 과테말라 시내 공항에서 비행기의 향로나 이착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은 소음이 굉장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ZONA 7에 대다수의 한인식당 및 식료품점이 위치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고급주택의 경우 자동차 차고(1가구당 1~2대)를 갖고 있으며 차고임차료는 주택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은 별도의 차고가 없어 거리에 주차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고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주택을 구한다. FULL-FURNISHED 주택은 거의 없고 주방에 필요한 일부 가구(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만이 비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거실이나 침실 등에 가구를 갖춘 주택이 있으나 임차료를 더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 시에 1명의 보증인(과테말라인 또는 현지거주 한국인)을 세워 함께 서명해야 하며 첫 달은 해당 월 임차료와 1개월 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DEPOSITO)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전화료, 전기료 등을 공제하고 집 내부 수리비를 공제한 후 돌려준다.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 시에 벽의 못 구멍이나 흠집, 바닥의 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 보통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2년 또는 3년 계약도 가능하다. 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수수료로 1,200~1,800과테말라 케찰 정도를 내야 한다.

주택 매매 및 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웹사이트는 www.olx.com.gt, guatemala.inmobilia.com 등이 있다. 관심 매물을 찾고 기재된 부동산 또는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협상하면 된다.

전화

최근에는 케이블TV, 인터넷과 결합된 유선전화 패키지가 대세이다. 통신사에 여권사본, 각종 공과금 영수증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다.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사로는 Telgua(CLARO), Telefonica(MOVISTAR), Comcel(TIGO) 등이 있다.

전압/플러그

주파수는 60Hz로 한국과 같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전압은 110V로서 220V 제품은 변압기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 산업용으로는 120, 240, 440V를 사용한다. 가끔씩 전압이 불안정해지므로 안정기 또는 UPS 사용이 보편적이다. 특히 우기가 되면 순간적인 단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건물들이 비상 발전기를 즉시 가동하여 큰 불편은 없으나, 컴퓨터 등 상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요구되는 기기

들의 경우 반드시 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수

상수도를 처리, 공급하는 시정부 산하 공기업(Empagua)이 있으나 많은 경우 주거 단지별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 물을 끌어올리고 있고 따라서 수질 관리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수도물 내에는 석회질을 비롯한 각종 이물질이 많고 대장균 등 각종 병원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도물은 끓여 먹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도 음용하거나 조리에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수도물을 정화해주는 가정용 정수기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병입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양치용 물도 수도물보다는 가급적 생수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식당에서는 대개 무료로 물을 제공하지만 병입 생수를 따로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과테말라에는 전 세계 주요 브랜드들이 모두 진출해 있어 기호에 맞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시장점유율 2-3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산 차량의 인지도는 좋은 편이나, 중고차 감가율을 고려하면 여전히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가 강세이다. 전체 차량 수입 물량의 7-80%가 중고차일 정도로 중고차 매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수도를 벗어나면 도로포장 상태가 열악하고 도심 곳곳에도 파인 길이 많아 지상고가 낮은 세단보다는 SUV가 운행하기 훨씬 용이하다.

판매량 기준 5대 브랜드별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현대자동차: www.hyundai.com.gt
- 기아자동차: www.kia.com.gt
- 도요타자동차: www.toyota.com.gt
- 닛산자동차: www.nissan.com.gt
- 마쓰다 자동차: www.mazdaguatemala.com

주요 중고차 매매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www.gustavomolina.com(과테말라 최대 중고차 판매업체)
- cofalusados.com(도요타 정식딜러가 운영하는 인증중고차 사이트)

신차, 중고차 모두 현지 금융과 연계하여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자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가급적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이 우선시 되는 기업인, 금융인, 국제기구/대사관 차량은 방탄 개조차량이 널리 쓰인다. 통상 제조사에서 방탄 개조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는 BMW 등 일부 고급차량에 국한되고 거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별도로 개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테말라 현지에 약 30여 개의 개조업체가 성업 중이나, 영세 업체의 경우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사후 지원이 안 되므로 비싸더라도 상급 개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 평이 좋은 개조업체는 GO ARMOR(과테말라 최대 보안기업 GRUPO GOLAN 자회사), GRUPO SIS 등이 있다. 45구경 리볼버 권총을 방어할 수 있는 NIJ III 등급이 권장되는 최소 방호 수준이며, 개조 비용은 중형 SUV 기준 25,000-27,000달러 선이다.

차량가격

아반떼는 보급형 GL등급 기준 20,000달러 선, 산타페는 31,000달러(보급형 GL 등급) 선이면 구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한 체감 가격은 보급형 브랜드/차량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비싸고, 고급브랜드/차량은 반대로 한국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보면 된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이나 일반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과테말라 도착 후 90일간은 별도 허가 없이 운전이 가능하나, 반드시 입국 소인이 날인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2015년 9월 16일 발효)에 따라서 한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증을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을 받고, 경찰청 교통국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한을 받게 된다. 이 서한을 가지고 아래 명시된 운전면허발급센터를 방문, 제출하면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뒤 면허를 받게 된다.

1) 교통국 제출용 구비서류

- 면허증 교환신청서(양식은 교통국에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은 전체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에 해당)
- 한국 발급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2) 운전면허 발급기관

-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nsito de la Policia Nacion al Civil)
 - 과테말라의 운전면허 관련 총괄 기관. 외국인의 운전허가증, 운전면허 교환발급 신청업무 취급
 - 주소: Calzada Aguilar Bartres 34-70. Zona 11, Centro Comercial Galerias del Sur, 2do Nivel
- 운전면허발급 센터(MAYCOM: Centro de Emisin Licencia de Comducir)
 - 홈페이지 : <http://www.maycom.com.gt>
 - 실제로 면허증을 발급, 교부하는 민영기관(소요 시간 약 1시간)
 - Guatemala, Quetzaltenango, Zacapa 등 3개 도시에 동 센터가 있음
 - 업무시간: 8:00~18:00(월~금), 8:00~13:00(토)

3) 운전 면허증 미소지자의 조치 방법

한국 운전면허증 미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정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영주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임시거주 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허가된 운전학원에서 필기, 실기시험을 치른 후 경찰청 교통국에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적법한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 시 300과테말라케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과테말라 금융감독원(SIB) 설립 이후 과테말라 소재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가급적 아래의 3대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 BANCO INDUSTRIAL 은행
 - 과테말라 제1의 은행이며, 중남미 경제지 AMERICA ECONOMIA에서 중남미 최우수은행(1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2017년 자산 규모 기준 10,707백만 달러).
 - 한국의 수출입은행과는 2017년 4월 3천만 달러 규모의 전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 BANCO DE DESARROLLO RURAL 은행

- 과테말라 제 2의 은행이다(자산규모 7,959백만달러)

o G&T CONTINENTAL

- 과테말라 제 3의 은행이다(자산규모 6,799백만달러)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권과 약간의 예치금을 가지고 가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 3~4일 이내에 과테말라 케찰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시 은행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0~2,000과테말라 케찰의 계좌개설 수수료를 받는다. 계좌가 개설되면 수표책을 발급받아 사용하며 별도로 신용/직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신청 시 1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개인 수표는 일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신용카드는 대부분 별문제 없이 통용된다. 일부 매장(특히 약국)에서는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COLEGIO MAY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E-KINDERGARTEN : 10,592 U\$ o ELEMENTARY SCHOOL(K-5) : 15,744 U\$ o MIDDLE SCHOOL(6-8) : 16,456 U\$ o HIGH SCHOOL(9-11) : 16,664 U\$ o SENIOR(12) : 16,880 U\$ o 기타경비 : 스쿨버스 13,964과테말라케찰/년, ESOL 5,565과테말라케찰/반기 등 o 입학금 : 7,500 U\$ (PRE-KINDER는 1,500 U\$)
홈페이지	http://www.cm.edu.gt
비고	1958년 설립된 국제학교이며, 한인 주재원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이다.

o EQUITY AMERICAN SCHOO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E-KINDERGARTEN : 6,300 U\$ o ELEMENTARY SCHOOL(K-5) : 11,070 U\$ o MIDDLE SCHOOL(6-8) : 11,970 U\$ o HIGH SCHOOL(9-11) : 12,870 U\$ o SENIOR(12) : 14,220 U\$ o 기타경비 : 스쿨버스 990-1,350U\$/년, TOEFL 수업 150 U\$/월 등 o 입학금 : 7,500 U\$
홈페이지	http://www.equity.edu.gt

비고	텍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EQUITY AMERICAN SCHOOLS 재단 산하 학교이며, 1988년 설립되었다. 한인들은 선호하지 않는 곳이다.
----	---

○ VILLAGE SCHOO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MENTARY SCHOOL(1-5) : 24,72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3,210 U\$) ○ MIDDLE SCHOOL(6-8) : 32,00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4,156 U\$) ○ HIGH SCHOOL(9-12) : 36,91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4,794 U\$) ○ 기타 : 스쿨버스 7,900 과테말라케찰(약 1,026 U\$)/년, 교재비 3,800-4,155 과테말라케찰/년 (약 494-540 U\$) ○ 입학금 : 2,500 과테말라케찰/년 (미화 환산 시 약 325 U\$) * (미화 환산 시 적용환율) 1 U\$ = 7.7과테말라케찰
홈페이지	http://village.edu.gt
비고	1993년에 설립된 현지 국제학교이다. 상기 2개 학교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한인들은 선호하지 않는 곳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 COLEGIO AMERICAN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KINDERGARTEN : 55,41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7,196 U\$) ○ ELEMENTARY SCHOOL(K-1) : 71,79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9,323 U\$) ○ ELEMENTARY SCHOOL(2-5) : 73,33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9,523 U\$) ○ MIDDLE SCHOOL(6-8) : 75,19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9,765 U\$) ○ HIGH SCHOOL(9-12) : 77,66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10,086 U\$) ○ 기타 : 스쿨버스 800 과테말라케찰/월(미화 환산 시 약 104 U\$/월) ○ 입학금 : 3,200 U\$/등록 시 1회 납부 * (미화 환산 시 적용환율) 1 U\$ = 7.7과테말라케찰
홈페이지	http://www.cag.edu.gt
비고	1945년에 설립된 현지 사립학교이다. 학비가 국제학교 이상으로 높고 학업성취도가 준수하여 일부 주재원들 자녀들이 COLEGIO MAYA 대신 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현지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이 많이 입학하는 편이다.

○ COLEGIO INTERAMERICAN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KINDERGARTEN : 40,32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5,236 U\$) ○ ELEMENTARY SCHOOL(K-5) : 44,100-49,14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5,727-6,382 U\$) ○ MIDDLE SCHOOL(6-8) : 51,660-56,70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6,709-7,364 U\$) ○ HIGH SCHOOL(9-12) : 57,120-61,11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7,418-7,936 U\$) ○ 기타 : 스쿨버스 5,488-5,775 과테말라케찰/년(약 713-750 U\$/년), 등록금 4,200 과테말라케찰/년(약 545 U\$/년) ○ 기부금 : 9,600-13,20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1,247-1,714 U\$) * (미화 환산 시 적용환율) 1 U\$ = 7.7 과테말라케찰
홈페이지	http://www.interamericano.edu.gt
비고	1970년에 설립된 현지 사립학교이다. COLEGIO AMERICANO 보다는 현지인 학생 비중이 더 많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 박상민의원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36 Ave. 1-74, Centro Comercial Mateo Xpress, Zona 7, Guatemala
전화번호	+502) 2439-8225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고	한인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며, 한인 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 세브란스내과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32 Ave. 1-34, Utatlan I, Zona 7, Guatemala
전화번호	+502) 2233-7234
진료과목	내과
비고	한인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며, 한인 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 CENTRO MEDIC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Ave. 3-47, Zona 10, Guatemala
전화번호	+502) 2279-4949
진료과목	종합병원(정신과,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외상외과, 방사선과 등)
비고	1949년에 설립된 과테말라 제1의 민간종합병원이다. 5개 수술실, 74개 병상, 재활병동, 신생아 인큐베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 HOSPITAL HERRERA LLERANDI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Avenida 8-71, Zona 10, Guatemala
전화번호	+502) 2384-595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1966년에 설립된 민간종합병원으로, 5개 수술실, 70개 병상, 내시경실, 혈액투석실, 분석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카테터술, 전기생리학 분야는 중미지역에서 가장 현대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 HOSPITAL GENERAL SAN JUAN DE DIOS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ra. Avenida 10-50 Zona 1, Guatemala
전화번호	+502) 2321-919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1667년 최초 개원하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국립병원으로, 보건부(MSPAS) 산하 최대 규모 병원이다. 1,000여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모든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OAKLAND MALL

주소	Diagonal 6, 13-01 Zona 10,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oaklandmall.com.gt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 번화가이자 부촌인 Zona 10 내에 위치해 있는 쇼핑몰로, 영화관 및 고급 식당가를 두루 갖추고 있다.

○ LAS MAJADAS

주소	Anillo Periferico 27 Avenida 6-40, Zona 11,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majadas.com
비고	넓은 부지에 대단위 쇼핑센터 및 식당가가 입주해 있으며, 한인 타운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 PASEO CAYALA

주소	BULEVAR RAFAEL LANDIVAR 10-05, ZONA 16,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ayala.com.gt
비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대단위 주상복합단지이며, 인근에는 과테말라 명문대학인 RAFAEL LANDIVAR대학이 위치해 있다. 미국 대사관 또한 인근 이전을 위해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로데오마켓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37 Ave. 2-15, Zona 7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잡화 일체
비고	한인 타운을 포함하여 과테말라시티 내에 3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 샤인코리아/샤인베이커리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2 Calle 34-15, Zona 7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및 한국식 빵 판매
비고	한인 타운 내에 있으며, 부지 내 린다뷰티 미용실이 함께 있다.

○ 해피마트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Boulevard Liberacion 4-11 Zona 9 Loca1, Plaza Asadis, Guatemala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잡화 일체
비고	Zona 10/14 등 중심가, LA AURORA 국제 공항에 가까이에 있으며, 한인 타운 내 그린 마트와 함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 린다뷰티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2a Calle 34-15, Zona 7, Guatemala (샤인코리아 부지 내)
소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한인 타운 내에 위치해 있으며, 샤인코리아/베이커리와 같은 부지 내에 있다.

비고	매주 화요일 휴무
----	-----------

○ 클럽 로스 델피네스(CLUB LOS DELFINES)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9 Calle 20-81, Zona14,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delfinesguatemala.com
소개	테니스코트, 피트니스센터, 아동 수영장 등을 완비한 스포츠센터이다.
비고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

○ 알타비스타 골프장(ALTA VISTA GOLF Y TENNIS CLUB)

도시명	산호세삐눌라(San Jose Pinula)
주소	Carretera a San Jose Pinula Km. 27 Ruta Nacional 18, San Jose Pinula,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altavistagolf.com.gt
소개	과테말라시티에서 30-40분 내외 떨어져 있는 근교 골프장이다.
비고	근교에 있어 방문이 편하고 한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골프장 중 하나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19-01-01	새해(공휴일) * 통상 12월 31일(월)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부터 연휴에 들어간다.
부활절	2019-04-18	4월 18일(목)~20일(토)까지 연휴(2019년 기준이며, 매년 상이하다) * 통상 4월 17일(수)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부터 연휴에 들어간다.
노동절	2019-05-01	공휴일
국군의 날	2019-06-30	2019년의 경우 일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 있음
성모승천일	2019-08-15	과테말라시티만 지정(지방 도시는 공휴일 아님)
독립기념일	2019-09-15	2019년의 경우 일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 있음
혁명기념일	2019-10-20	1944년 혁명을 기념하는 국가 공휴일
만성절	2019-11-01	공휴일

성탄절	2019-12-25	공휴일 * 통상 12월 24일(화)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부터 연휴에 들어간다.
-----	------------	--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과테말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13 Calle 3-40, Zona 10, Edifi. Atlantis, Of.605, Guatemala City, Guatemala
- 전화 : +502) 2298-0000
- 대표 이메일 : 716102@kotra.or.kr 또는 business@kotraguate.org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guatemala>
- 참고사항 : 우편물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중간에 유실되거나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서야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DHL, FEDEX, UPS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무역관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Oficina Comercial de la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를 병기하여야 불합리한 과세, 배달 사고 등 발생 시에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공항-무역관 이동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과테말라시티 ZONA 10(제10구역)에 소재한 아틀란티스빌딩(Edificio ATLANTIS)에 입주해 있다(6층 605호). 과테말라 관문공항인 LA AURORA 국제공항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체증이 없는 경우 무역관까지는 15~20분가량 소요된다.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은 관계로 공항에서의 이동은 공항택시(AirporTaxi)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요금은 공항 택시의 경우 75과테말라 케찰 또는 10달러이며, 일반택시는 45과테말라 케찰 또는 6~7달러 정도 소요된다. 무역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Westin Camino Real, Intercontinental, Holiday Inn, Radisson, Clarion Suite 호텔이 위치해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온두라스행 고속버스(Pullmantur)가 Holiday Inn에 출/도착 터미널을 운영하므로, 이후 육로를 통해 인근국으로 이동하려는 방문객은 해당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역관 입주 건물은 로비 리셉션에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입증을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역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방문객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문 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무역관과 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열린 무역관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선 인터넷을 비롯하여 인쇄/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역관을 바이어와의 미팅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